

동 창 회 보

인·행

2015 Spring
vol 107

03 투고 규정

동창회 소식

04 이사회 소식

06 제13회 안행대상

14 장학금 수여식

Special Issue

16 제11회 골프대회

18 제26회 등반대회



20 지부 소식

25 동기회 소식

31 모교 소식

동문탐방

36 김인주(47회) 동문

39 최진교(54회) 동문

42 퇴직동문탐방

2015 Spring

통권 제107호

발행인 동창회장 지용철

편집인 공보이사 김인겸

발행일 2015년 5월 7일

편집대행 e-포럼 (053)744-8416

e-mail kpmedal77@hanmail.net

44 개인동정

45 동문이 펴낸 책

46 경조사

회원특별기고

48 백종흠 동문 추모의 글

50 정태호 동문 추모의 글

52 박희명 동문 추모의 글

동문문예

54 35회 북유럽 여행

56 Letter : Saluting two
inspirational lives

57 장재옥 여사 「우리요리이야기」

경북의대 동창회 기금 현황

58 발전기금 납부 현황

59 장학기금 1인1계좌 명단

65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78 2014년도 장학기금 모금 현황

79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동창회비 현황

81 납부 유형별 연회비

82 동창회 연회비 납부현황

88 동창회 기수별 회장단 명단

90 편집후기

91 송금안내 및 동창회 임원

투고 규정

1. <안행>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의 공식 잡지로서 반기(상반기, 하반기)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 자격

자유기고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하 동창회로 칭한다) 회원에 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에 의해 외부기고를 심의하여 게재 할 수 있다.

3. 원고의 내용

1) 원고의 내용은 동창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동창회의 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간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는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기고 원고의 분량을 글자 크기 10point, 줄간격 160%로 작성한 경우 A4용지 1/2장 이상, 3장(200자 원고지는 15장 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유기고 원고의 게재는 한 회원당 1년 1회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4월 봄호(10월 가을호)부터 시행한다.

2015년 이사회 소식

2015년도 제7차 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안행대상 시상식

지난 2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동창회원 150여 명과 내빈 이동수 경북대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정기총회와 안행대상 시상식이 있었고 학생들의 특별 연주회가 돋보였다. 2015년 안행대상 시상식에서는 학술연구 부문에 고 정태호(26회) 동문, 사회공헌 부문에 전재규(30회) 동문, 의료봉사 부문에 우석정(54회) 동문이 각각 수상하였다



2015년도 의전원(78회) 신입생 환영회

2015년 1월 20일에 의전원 졸업식 당일 의전원 신입생 80여 명과 동창회 임원 10명이 들안로 행복의 날 식당에서 환영식을 열었다. 학생들과 처음으로 부담 없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는 계기로 삼았다.



2014년 제6차 정례 상임이사회

지난 9월 7일 제6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박매자 의전원장, 조병채 병원장, 송중원, 박문흠, 강인구, 고삼규, 이민석, 정현주 부회장과 김문규,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신현호, 김정민, 상영호, 민복기, 김경호, 임정훈 이사와 이정근, 최시호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대 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전원장님과 경북대 병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전체이사회 부활과 등반대회에서 서울지부 참석 독려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14년 제7차 정례 상임이사회

제7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송중원 부회장, 고삼규 부회장, 김문규,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김정민, 상영호, 민복기, 김원섭, 신형웅, 최재석, 임정훈 이사 및 최시호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0월 6일에 의대 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비납부 장려에 대한 안건이 토의되었다.

2014년도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송중원 부회장, 김문규, 제석준, 상영호, 민복기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0월 20일에 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10월 중 중요행사인 전체이사의 중요 토의 안건에 대한 점검과 등반대회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2014년도 전체이사회

6년 만에 개최한 경북의대 동창회 전체이사회가 2014년 10월 23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다가오는 2015년 정기총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으로 우선 효과적인 회원 관리를 위한 회비 징수와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행사 참여 유도 및 정기총회 진행의 개선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토의가 있었다.

2014년도 제8차 정례 상임이사회

제8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박문흠 부회장,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신현호, 상영호, 민복기, 임정훈 이사와 이정근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1월 3일 의대 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전체 이사회와 등반대회에 대한 개선점과 동창회비 납부자의 정리 등에 관해 토의되었다.

2014년도 제9차 정례 상임이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최병연 영남대 의료원장, 김관배 계명대 의료원장, 송중원, 박문흠, 안기영, 강인구, 고삼규, 광동협, 손효돈, 정현주 부회장과 김문규,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김정민, 상영호, 민복기, 최창혁, 최재석, 김경호, 임정훈, 이우근, 변승득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2월 8일 한정식당 동심각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 날짜, 진행방법 및 특별 공연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14년도 제10차 정례 상임이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김중서, 송중원, 박문흠, 정현주 부회장과, 김문규, 제석준, 김인겸, 김정민, 상영호, 민복기, 김원섭, 최창혁, 서영익, 이우근, 변승득 이사와 이정근, 최시호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월 5일 의대 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참석인원 점검과 의전원 신입생환영회 등에 관해 토의되었다.

2014년도 제11차 정례 상임이사회

제11차 상임이사회가 지용철 회장, 박문흠, 안기영, 고삼규, 손효돈 부회장, 김문규, 제석준, 김인겸, 신현호, 김정민, 상영호, 민복기, 서영익, 김경호, 변승득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2월 2일 의대본관 제2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와 안행대상 시상식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제13회 안행대상

안행대상은 평생을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드리기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2015년 2월 25일에 열린 제13회 안행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연구 부문에는 고 정태호(26회) 동문, 사회공헌 부문에는 전재규(30회) 동문, 의료봉사 부문에는 우석정(54회) 동문이 수상하여 동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안행대상 시상식에 앞서 모교 교정에 설치된 안행대상 조형물에 이름을 새기는 각명식도 거행되었다.



역대 안행대상 수상자

	학술연구 부문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
제1회	박희명(13회)	조운해(18회)
제2회	서순봉(13회)	이주걸(5회)
제3회	여용연(28회)	지성해(18회)
제4회	손태중(24회)	신장곤(24회)
제5회	故 오창열(20회)	김명호(14회)
제6회	김재호(27회)	故 임학권(22회)
제7회	최중식(28회)	정창근(27회)
제8회	이동식(10회)	김집(16회)
제9회	강반(31회)	故 신학진(2회)
제10회	김익동(19회)	이철상(27회)
제11회	전성균(25회)	이근후(29회)
제12회	이규청(34회)	사회공헌 : 이대부(12회) 의료봉사 : 유덕중(52회)
제13회	故 정태호 (26회)	사회공헌 : 전재규(30회) 의료봉사 : 우석정(54회)

*안행대상은 2003년부터 제정된 상입니다.



제13회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

故 정태호 26회

학력 및 주요 경력

- 1958.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1968.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1964. 6~1998.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면역학교실 교수
- 1966. 8~1967. 8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생화학교실 연구원
- 1971. 11~1973. 2 미국 리치몬드 VA 병원 및 버지니아의대 내과학교실
- 1975. 8~1976. 2 미국 뉴욕주립대학(버팔로) 의과대학 교환교수
- 1979. 3~1979. 6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암연구소 교환교수
- 1982. 3~1995. 3 경북의대 기초의학연구소장
- 1988. 9~1990. 8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1990. 6~2009. 2 WHO바이러스성 간염 면역연구센터장
- 2014. 12. 12 작故



주요 포상

- 1989. 4. 21 1989년 과학의 날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활동 내역

제13회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는故(고) 정태호(26회) 동문이다. 정태호 동문은 1958년 의과대학 졸업 후 기초의학에 입문하여 34년간 모교 생화학교실과 면역학교실(1988년 창설)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환교수 혹은 객원교수로 미국, 일본,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학술교류를 하였으며, 대한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고문, 대한면역학회 고문 및 New York Science Academy 회원으로서 대외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다. 모교의 학생과장, 교무과장, 기초의학연구소장, 국제학술부장, 간연구소장, 학장 등의 여러 보직을 역임하며 학교발전에 큰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항암면역치료제 Tubercin과 간염치료제 Hepaguard 등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였다.



제13회 안행대상
사회공헌 부문

전재규 30회

학력 및 주요 경력

- 1962.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1981.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1966~1972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등 전문의 수련
- 1973 미국의사면허증 및 미국 마취과 전문의 자격증
- 1973~199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 주임교수
- 1978~1979 미국 Temple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1996~2002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1999~2000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창립 및 2대 회장
- 2000~2004 한국호스피스협회 초대이사장(현, 고문)
- 2003~현재 동산의료원 박물관 명예관장
- 2009~2013 대신대학교(대구신학교) 제5,6대 총장
- 2014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사문화운동본부 이사장(총재)



주요 포상

- 1992. 4. 25 교육의료문화 저술상(대한의학회회장)
- 2003. 6. 6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공로패(국가보훈처장)
- 2003. 8. 28 교육표창장(국무총리)
- 2003. 12. 31 선행모범 시민상(대구광역시장)
- 2008. 12 보훈문화 확산기여 감사패(국가보훈처장)
- 2013. 3. 1 지역사회발전 공헌 표창패(대구광역시장)

활동 내역

제13회 안행대상 사회공헌 부문 수상자인 전재규 동문은 경북대학교 의학박사와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수련을 가진 의학전문학자로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료봉사활동을 함과 동시에 신학교 졸업 후 대신대학교에서 30년간 봉사 후 총장에 취임하여 국내외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전 동문은 한국의료윤리와 생명윤리학회의 창립위원이며, 한국호스피스협회를 창립하여 오랫동안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대구지역 3·1운동 관련 고적 문화재 발굴을 비롯하여 대구 3·1운동의 민족정신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안행대상 수상소감

원래 안항(雁行, 기러기 안, 항렬 항)이란 형제(兄弟)를 뜻하는 고어인데, 안행(雁行, 갈 행)을 안행으로 잘못 부르기도 한다. 여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을 호칭하는 안행(雁杏, 살구나무 행)은 기러기와 살구나무의 복합어이다. 그 뜻은 “자비를 베푸는 의원의 형제들”이란 고사성어이다. 옛날 삼한시대에 명의인 동봉이 환자로부터 진료비 대신 뒤뜰에 살구나무를 기증받아 심었는데 나중 살구나무 숲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의료계 또는 자비의 의원을 행림(杏林)이라 불렀다. 따라서 안행의 의미는 “환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진 의사의 형제 동문”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북의대 동창회는 안행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기러기는 짝을 지어 앞서거나 뒤서거나 질서를 따라 서로 격려하며 구만리 창공을 힘차게 날아간다.

나는 평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임을 믿고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실천해보고 싶은 터였는데, 금번 출지에 안행대상의 수상자가 되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니 조심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감회를 느낀다. 평소 나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동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모교를 자신 있게 자랑해왔다. 그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경북의대의 역사성이다. 한국 근대문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발전은 지금의 서울대학병원의 전신인 경성의전(경성의학전문학교)과 경북의대의 전신인 대구의전(대구의학전문학교)의 뿌리에서 성장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그 이전에 벌써 세브란스병원과 대구동산병원 등 기독교 병원의 영향을 받으며 함께 성장했지만 적어도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이 기초적 토대 위에서 성장하였다. 경성의전은 한강 이북을, 대구의전은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의료교육기관이었다. 그렇다면 대구의전의 설립일자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립일자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나이와 생년월일은 모두가 다르다. 음력과 양력 그리고 태중 10개월을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한국 나이는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교의 생년월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초창기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고 100년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늦어질수록 역사를 체험한 선진들이 타계하게 되면 역사에 더 많은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비록 역사가 훨씬 짧은 많은 기관들도 50년 또는 70년사를 벌써 출판했다. 우리의 모교가 이렇게 빛나는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역사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베풀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인술이다. 의사는 자유인으로 무슨 분야든지 개척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종합예술의 직업이다. 이러한 고귀한 직업으로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삶의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조건이 뒷받침이 되었기에 필자도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가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학과 신학,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노력도 하게 되었다.

셋째로, 종교생활을 깊이 할 수 있었다. 'Healing is the life'란 말이 있다. 의술은 돌봄(care)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한다는 뜻이다. 의학을 깊이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회와 민족을 위한 이웃사랑에도 힘쓸 수 있음이 고마웠다. 나는 의학을 가르치며 시술하며 신학을 배웠다. 그리하여 호스피스를 창립하였고 생명윤리, 의료윤리, 통증의학 분야도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한 여정에서 치유선교학(Healing Missiology)이란 초유의 새로운 분야도 창립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목사가 아닌 의사로서 최초로 신학교 총장이 된 것도 의사의 직업이 주는 큰 혜택이라 생각되었다. 이상의 내가 받은 모든 혜택은 모교인 안행의 덕분이라 생각하니 모교의 정문만 쳐다보아도 뿌듯한 마음 감출 길 없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나뉠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 함께 동역한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나를 교육시킨 모교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란, 빛진 마음으로 여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15년 2월 25일
제13회 안행대상 수상자 전재규





제13회 안행대상
의료봉사 부문

우석정 54회

학력 및 주요 경력

- 1986.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2000.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1990. 3~1994. 2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전공의
- 1994. 3~1998. 5 포항성모병원 흉부외과장
- 1998. 6~2000. 12 김해복음병원 흉부외과장,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교수
~2000. 2 응급의학과 전문의
- 2001. 2~현재 베트남 의료선교사



주요 포상

- 2008 유공재외동포 대통령 표창

활동 내역

의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우석정 동문은 1986년 모교 졸업 후 흉부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1년 의료 낙후지역인 베트남으로 의료선교사의 길을 떠나 2006년까지 약 210회에 걸쳐 의료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의료봉사계의 거물이다. 2006년 베트남 남부의 롱안 지역에 현대식 병원을 설립하고, 고엽제 센터 운영, 베트남식 헤비타트 운동, 한글교실 운영과 장학사업 등을 하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진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국 심장병 수술, 원조기관과의 협력 하에 현재까지 210여 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으며, 언청이를 비롯한 악·안면기형 환자 120여 명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안행대상 수상소감

우선 경북의대 동창회와 사랑하는 54회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아직은 많이 일천한데, 귀한 상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나아 갑니다.

부모님, 아내, 자녀들, 형제간들, 사역 동료들, 대학 동기회의 여러 마음을 나누는 지체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많은 눈물로 떠나 보내셨던 부모님께 이번 기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물질양면 도와왔던 형제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기들이 한결같이 열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떠날 때부터, 십시일반 달마다 모아준 자금이 저희 사역의 주요 전환점들마다, 요긴하게 기초 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에서 수술, 진료 등으로 많이들 돕고, 큰 현금으로 함께해준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동인동 아이였습니다. 동인국민학교 출신입니다. 한 번씩 지나치던 이른 아침시간, 학교 교정 테니스장에서 하얀 운동복을 입고 테니스를 치시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도 나중에는 저런 분들 같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후에는 바로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영광스런 자리까지 허락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도 병원도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더 나은 미래들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이 일들에 전심하는 모든 동문 선, 후배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 감사의 인사를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15년 전에 떠날 때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 보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었는데, 우선 사역할 수 있는 선교기지 병원 캠프를 주셔서, 베트남 시골 사람들을 위한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또 혼자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음을 아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분들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처음 두 가정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단위 정도의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베트남 유급 직원들은 67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면, 더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지금은 의료 후진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은 깊습니다. 일찍부터 서방 문물을 접하였고 개방하였던 바, 상당한 깊이의 의료 기반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베트남은 과거나 지금이나 단순한 외국이 아닌, 사돈 국가로서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피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 며느리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살피고, 필요들을 또한 잘 돌봐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 국력 신장의 첨단 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의 땅에서 밭을 딛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 따라 신념 따라, 이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내가 베풀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렵겠지요. 더 겸손하게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따름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함께 손모아 주십시오. 모든 분들 강건하십시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13회 안행대상 수상자 우석정

2015 전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5 전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27일 경북의대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선배들의 사랑이 바탕되어 마련된 장학금이 의전원 18명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경북의대 동창회장과 의전원장, 의전원 교직원 및 그외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후배를 위한 마음 감사히 받아 경북의대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글 _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전중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중복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학금을 받게 된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선배님들께 화답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동창회장님, 의전원장님, 그리고 동창회 임원단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원에 입학하여 입학식을 치르고 해부학을 공부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됐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저의 모교가 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정말 꿈꿔오고 바라왔던 곳이었습니다. 입학을 한 후 지금까지도 경북의대는 저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의 원천은 바로 오랜 세월동안 학교를 사랑하고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경북의대를 빛내고 가꾸어 오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창회장님께서 항상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재학생에게 참 의미있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꿈이 있어서 행복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힘들었던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중간 중간 그 꿈이 흐려지고 위태로운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앞으로 펼쳐질 그 꿈을 위해 참고 견디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오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재학생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꺾여 버릴 뻔 했던 꿈들이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이 소중한 장학금으로 인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의사가 되면 이제는 선배님들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의 한 명의 회원으로서 후배들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선배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저도 제가 졸업하게 될 이 학교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위할 줄 아는 훌륭한 선배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꼭 그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날들도 있겠지만 그 때마다 지금 이 자리와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했던 다짐들을 떠올리며 이겨나갈 것이고 영원히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글_ 최동호 사업이사



일시 2014년 8월 24일

장소 경산 인터불고cc

장마가 한창인 8월 24일 경산에 있는 인터불고 골프장에서 제11회 경북의대의전원 동창회 골프대회가 열렸다. 다행히 습도는 높았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기별 대항전 14팀, 초청 및 개인전 4팀 총 18팀 71명이 참가했다. 예년과 달리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가했다. 이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12시경 광장에 모여 사진 촬영이 있었고 연이어 시타 행사가 있었다. 마운틴, 벨리, 스카이 코스로 6팀씩 출발하였다. 러프가 길고 그린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즐겁게 진행되었다. 후반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늘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하고 내기도 하면서 5시간 만에 모든 경기가 끝났다.

스코어카드를 모아서 성적을 기별로 기록했다. 그동안 연회장에서 김치전골로 다들 저녁식사를 했다. 연이어 시상식 행사가 있었다. 지용철 동창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내빈 소개에 이어 이동수 경북대 총동창회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성적 발표가 있는 후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우승은 4명 성적 합산이 326타 평균 81타를 친 59회(김학수, 조준용, 김하균, 정주화)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329타 평균 82타를 친 52회(추진

신, 김영조, 남문진, 김봉재)가, 3등은 331타 83타를 친 55회(이재혁, 신현호, 김승엽, 한수일)가 차지했다. 트로피 및 부상 수여가 있었다.

챔피언전에서는 59회 조준용 동문이 75타의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55회 신현호 동문, 3등은 43회 박노문 동문, 4등은 49회 배홍갑 동문이 차지했다.

이어서 개인상 시상식이 있었다. 먼저 룡기스트는 310m 무시무시한 거리로 공을 친 51회 김명진 동문이 받았고 니어리스트는 0.5m 가까이 붙인 59회 김학수 동문이 받았다. 감투상에는 전 동창회장님이신 47회 김징균 동문이, 매너상은 경상북도 의사회장 48회 정능수 동문이, 페어플레이상은 40

회 박난희 동문, 특별상에는 43회 조동규 동문, 정화선 동문, 행운상에는 61회 여동근 동문이 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전 시상식이 있었다. 우승에는 87타를 친 동창회 정보이사인 55회 상영호 동문이 받았고 인기상은 53회 김숙영 동문이 받았다.

전 동창회장님이신 40회 김징균 선배님의 건배 제의가 있는 후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골프대회를 마쳤다. 마무리로 계산을 마치고 수고한 후 배낭 사무실 직원들과 조출한 뒤풀이 자리도 가졌다. 점점 참가동문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프대회는 계속 될 것이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26회 경북의대 동창회 등반대회

글_ 최동호 사업이사



일시 2014년 10월 26일
장소 문경새재 주흘산

단풍이 한창인 10월 26일, 문경새재 주흘산에서 등반대회가 열렸다. 대구에서는 의대 후문에서 모여 4대의 버스로 100여 명이 출발했다. 서울지부 동문, 부산지부 동문, 동해지부 동문도 각자 지역에서 버스로 출발해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10시경에 만나기로 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조금 늦게 출발한 관계로 좀 일찍 도착한 서울 및 동해 동문들이 왜 안오냐는 독촉전화가 빗발쳤다. 다행히 조금 늦게나마 약속장소에 도착해서 멀리서 온 동문들과 반가운 조우를 했다.

단풍이 한창인 시즌이라 그런지 문경새재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 야외공연장에서 동창회장님의 인사 및 원로 동문님들 및 지부회장과 총무의 소개가 있었고 기념 촬영 후 미리 정해진 코스에 따라 등반을 시작했다. 등반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주흘산 주봉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연로하신 선배님께서는 문경새재 제2관문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등반을 시작했다. 제1관문까지는 다같이 천천히 걸어가며 아름다운 단풍경치를 감상했다. 제1관문에서 주흘주봉으로 가는 코스는 여궁폭포와 해국사를 거쳐 주흘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코스가 비교적 가파르고 험해서 등반하기에 힘들다. 반면 문경새재 2관문으로 가는 코스는 평탄하고 경치가 좋다.

단풍보러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각자 혹은 동기들끼리 등반을 마친 뒤 미리 답사해서 예약한 문경식당으로 모였다. 문경식당 지하 연회장은 200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문들끼리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다. 메뉴로는 고추장삼겹살과 버섯전골, 고등어구이로 테이블당 준비했다. 일찍 내려온 동문부터 마지막에 내려온 동문들까지 무려 1시간 차이가 났다.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대충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여흥시간이 시작됐다. 벌써 내리 4년째 사회를 보는 사업이사 진행으로 동창회장님 인사 및 원로 동문 및 지부 동문들 소개가 있었다. 소개되는 지

부 및 기별 동문들의 노래자랑이 있었고 중간 중간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도 드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5시가 지날 무렵 행사가 끝나고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며 각자 지역으로 돌아갔다.

타지역 유명 명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아 200여 명의 행사를 하기에는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않아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격년으로 대구 근교와 중부 지역에서 등반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동창회 각 지부 소식

▶ 북미주지부 제공 _ 이규청(34회) 동문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의 역사는 1950년도에 시작하였지만 잠시 중단되었다 50년 전에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50번째로 계속된 동창회이었기에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1949년 졸업선배님부터 2008년 졸업 후배까지 북미주 동창회의 회원은 382명입니다. 대부분의 동문님들께서는 1970년 전 일찍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2014년 북미주 동창회 50주년 정기총회는 NewYork Long Island Hyatt Regency Hotel에서 10월 2~5일에 약 150여 명(정회원 74명과 부부 및 초대손님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즐거운 행사들로 차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취임하신 지용철 동창회장님의 동창회 소식과 앞으로의 발전계획,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박매자 의전위원장님의 의과대학 연혁, 최근 소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Washington DC지역의 권석찬 동문님(66 졸업)을 2015년도 회장으로 선출하여 정규용(1970년 졸업) 총무님과 함께 금년도 행사를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2015년 행사로는 4월 중순의 대의원회와 10월에 예정중인 19년 정기총회가 주로 되겠습니다. 10월 정기총회는 10월 11~16일(6박6일)의 Los Angeles, California-Baja, Mexico 왕복 cruise로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정규용 총무께 연락하시면 됩니다.(kajklc1@verizon.net). 2016년 북미주 동창회장에는 육정혜(66 졸업) 동문께서 선출되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중입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한동안 참가하시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2015년 50주년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활기가 새로 일고 있으며 권석찬 금년도 회장님과 육정혜 차기 회장님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더 활기찬 동창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창립 이후 계속 모교를 위한 여러 가지 장학 행사를 해왔습니다. 2014년에도 약 17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장학금을 기증하여 총 \$101,700를 모금하였고 그 중 \$86,200은 이미 본동창회에 전달되었습니다(일반 장학금 \$66,100과 1964년도 졸업 50주년 모교방문 장학기금 \$18,500). 지금 1965년 졸업 50주년 모교방문 행사에 북미주 동문들께서 많이 참석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장학금 모금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북미주동창회 회고



저는 1966년도에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재미 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는 권석찬입니다. 고국에 계시는 동창 선후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 역사도 어느덧 반 백년이 넘었습니다. 모국으로부터 여러분의 보살핌이 있었고, 한편 이곳 미국에서도 동창생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인술을 베풀어 이 사회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배들이 이곳에 오는 문이 거의 막혀서 이곳 동창회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노화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 있는 우리 동창생들도 모교의 발전과 모교 본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멀리서나마 깊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이곳 저희들의 2세대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고 급인력으로 이 미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이곳 2015년도 동창회 총회를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천혜의 휴양지인 멕시코 서해안에서 Baja California Cruise Tour 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특히 모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비록 역사의 뒀안길로 명멸해가는 이곳 동창회는 끝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밝은 빛을 밝힐 것입니다. 인영히 계십시오.

-3월 29일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장 권석찬

▶ 서울지부 제공 _ 노명호(56회) 동문

10월 26일, 경북의대 문경새재 주출산 산행에 재경 경북의대에서도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56회 유광석 등반대장의 적극적인 홍보의 덕분으로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대여와 기타 식음료 준비에 총무와 재무이사를 대신하여 활동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경 경북의대 이사회가 11월 26일 우미각에서 있었습니다. 차기회장단의 선출과 송년회의 모임이었으나 새 회장님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문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울대 분당병원 기획실장이자 홍보외과 주임교수인 52회 전상훈 동문께서 참석하셔서 1차 식비를 내어 주셨고 2차는 54회 원병원 원장이신 지용대 동문께서 부담하셨습니다.

12월 2일 재경 여의사회에는 그동안 회무를 보던 47회 남성이 동문에 이어 56회 이향주 동문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고 총무는 그동안 일을 잘한 서문정 선생이 계속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경 여의사동문회의 발전과 재경 동문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39차 재경 경북의대 총회가 지난 2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40분의 회원이 참여했고 대구에서 지용철 동창회장님과 박매자 의전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특히 재경 여의사 임원과 함께 동창회장님이 동창회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건배제의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차기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지 못해서 현 김용신 회장님께서 선후배님들의 권유로 연임을 하시기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여 침체된 재경 동창회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새로이 꾸려지는 회장단의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새로이 꾸려지는 회장단의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 부산지부 제공 _ 최광호(47회) 동문

1) '요양병원의 이해'라는 연제로 강연회 개최



사공균환 선생님 강연모습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 부산이비인후과 지하2층
부산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남상승(49회), 송필오(50회), 사공균환(52회)을 연자로 하여 39명의 강의신청을 받았고 우천 및 지하철 화재사고로 불참회원이 늘어 30명의 강의참석이 있었습니다.

참석회원 : 함께 30명(존칭생략)
참석자 - 고경환, 곽각순, 곽동수, 구중수, 권용주, 김종규, 김태곤, 김판석, 박노삼, 박병덕, 박형규, 백영수, 손태환, 심달보, 이경한, 이재성, 이종수, 이영주, 천덕영, 최인철, 최명부, 하근수(22명)
강의진 - 남상승, 사공균환, 송필오(3명)
집행부 - 김성학, 최광호, 조승호, 이영택, 이용석(5명)

2) 본부동창회 주관 가을등반대회 참석

일시 : 2014년 10월 26일(일)
장소 : 문경새재 주출산

역대 가장 많은 부산동문이 참석 유일하게 정상을 밟고 내려온 팀이 부산동문이었고 정상도전 팀은 햄버거로 간편하게 식사하였습니다. 해마다 지리산 중주로 체력점검을 하신다는 28회 김희교 선배님!! 역시 발군의 등산실력을 보여주셨고 뒤푼이 장소에서는 시간관계상 조금 일찍 출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예천 회룡포를 경유함. 이후 본부에서 하사한 50만 원으로 어느 식당에서 불고기 전골 및 갈비탕으로 민생고를 해결하였습니다. 지용철 회장님 감사합니다!!!



주출산 영봉

참석동문 : 36명(동문 및 가족 32명 7부부)
 김희교(28회), 심제용(32회) 부부, 최명부(33회) 부부, 김수길(34회), 김태곤(38회) 부부, 박노삼(39회) 부부, 박진현(39회), 김성학(41회), 김대석(43회), 박재우(43회), 강신수(44회), 고병구(46회), 손태환(47회), 조승호(47회), 최광호(47회), 이용석(48회), 이영택(48회), 이재성(49회), 백승언(50회) 부부, 이종오(52회), 황영표(53회), 정규식(54회), 김광수(54회), 김태화(54회)-편도철(54회) 부부, 이경한(59회) 부부



주출산 영봉에 오른 부산지부 정상도전 팀

의사신험 직원 – 최길용 과장, 공윤경 대리, 황성철 및 김진영 사원(4명)

3) 회원수첩 발간

2014년도 초에 도로명주소의 사용과 휴대폰번호의 변경으로 회원수첩의 신규발간을 계획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수) 확대이사회에서 편집 인쇄 완결된 새 회원수첩을 배부하였습니다. 2011년 수첩에 등재된 295명 중에 15분이 작고하셨고 또한 10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이 있었으나 63회에서 80회에 걸쳐 해운대 백병원, 개금 백병원, 동남권원자력병원, 메리놀 병원, 부산대학병원 등으로 새 회원이 유입되어 306명의 사진과 명단을 확보하여 새 회원수첩에 등재하였습니다.

각 기별 회원현황(2015년 1월 31일 기준)

15회 1명, 17회 1명, 18회 2명, 19회 32명, 22회 12명, 24회 1명, 25회 72명, 26회 82명, 27회 15명, 28회 9명, 29회 10명, 30회 7명, 31회 7명, 32회 3명, 33회 5명, 34회 2명, 35회 4명, 36회 3명, 37회 3명, 38회 4명, 39회 3명, 40회 4명, 41회 8명, 42회 2명, 43회 6명, 44회 4명, 45회 10명, 46회 6명, 47회 10명, 48회 11명, 49회 14명, 50회 10명, 51회 9명, 52회 8명, 53회 10명, 54회 10명, 55회 8명, 56회 6명, 57회 7명, 58회 5명, 59회 9명, 60회 4명, 61회 5명, 62회 2명, 63회 3명, 64회 2명, 65회 1명, 66회 3명, 67회 6명, 69회 3명, 70회 9명, 71회 4명, 72회 4명, 73회 1명, 74회 1명, 75회 1명, 77회 1명, 79회 2명, 80회 1명 총 309명

각 구별 회원현황(2015년 1월 31일 기준)

각 구	개원	봉직	휴직	수련	계
서, 사하, 강서	19	12	2	3	36
중, 영도	8	6	1	2	17
동구	11	2	1		14
부산진구	25	11	5	1	42
동래, 연제, 금정	24	26	6		56
남, 수영	21	19	7		47
북, 사상	18	6	1		25
고신외대		13	1		14
침례병원		7			7
해운대, 기장	22	18	5		45
기타		4	2		6
계	148	124	31	6	309

4) 회원동정

2014년

8월 26일(화) 이재우(41회) 선생님 정년퇴임식, 고신외대 내과
 9월 19일(금) 은총기(41회) 선생님 정년퇴임식, 해운대백병원 영상의학과
 10월 12일(일) 김임숙(19회) 내과의원 폐업
 10월 17일(금) 조행임(49회) 조안과의원 폐업 → 총무동 눈초롱안과의원 봉직
 11월 29일(토) 사공균환(52회) 선생님 재개원, 블루정형외과의원

2015년

1월 31일(토) 권성우(59회) 성은연합이비인후과의원 개원 (강서구 신호동)
 이은영(59회) 성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개원 (강서구 신호동)
 최한용(41회) 침례병원 영상의학과 재취업
 황연수(71회) 침례병원 정형외과에서 동의의료원으로 이전

경조사

2014. 7. 3(목) 김근주(26회) 선생님 본인상
 2014. 7. 12(토) 유현열(46회) 선생님 장녀 결혼
 2014. 8. 26(화) 이재우(41회) 선생님 정년퇴임식
 2014. 8. 30(토) 구인혜(79회) 선생님 결혼
 2014. 9. 14(일) 이영택(48회) 선생님 장녀 결혼
 2014. 11. 3(월) 정용국(28회) 선생님 부인상
 2014. 11. 27(목) 이종담(19회) 선생님 부인상
 2014. 12. 14(일) 지창준(35회) 선생님 모친상
 2015. 1. 8(목) 박병기(26회) 선생님 본인상(미국LA)
 2015. 1. 24(토) 김광렬(48회) 선생님 장남 결혼

5) 각 분구모임

2014. 9. 22(월) 동금연분회 정기모임
 2014. 9. 23(화) 부산진구분회 정기모임 – 총무 교체 김현수(57회)→김태모(61회)
 2014. 12. 5(금) 고신외대분회 정기모임 – 회장 교체 손정환(45회)→유현열(46회) / 총무 교체 김광수(54회)→허정호(63회)

2014. 12. 15(월) 북,사상구분회 정기모임
 2014. 12. 16(화) 남,수영구분회 정기모임
 2014. 12. 29(월) 동,금,연분회 정기모임
 2015. 1. 13(수) 부산진구 정기모임
 2015. 1. 19(월) 동구분회 정기모임
 2015. 1. 21(수) 서,사하,강서 분회 정기모임
 2015. 1. 30(금) 중,영도구 분회 정기모임

6)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동창회 제7기차 정기총회 및 제41차 경의금고 정기총회 개최



제7기차 정기총회 모습

일시 : 2015. 2. 23(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1. 참석회원
 총회를 파티분위기로 해보자고 김성학 회장님(41회)이 제안하여 선물로 마련한 붉은색 나비넥타이를 멘다고 총회장 입구에서 등록서명한 동문은 불과 19명이지만 약 150명 가량의 동문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지용철 동창회장님, 박매자 의학전문대학원장님, 조병채 병원장님, 김경수 부산광역시사회장님의 참석과 축사가 있었습니다.
 3. 시상
 ①박노삼(39회) 전임회장님에 대한 공로패 증정
 ②전임임원(13명)에 대한 공로상 증정
 ②모범분구 시상 – 부산진구 : 회장 고병구(46회)/총무 김태모(61회)
 ③회갑기념품 증정(11명) – 정만홍(47회), 김광렬(48회), 손혜

경(48회), 이영택(48회), 이용석(48회), 전종완(48회), 박진훈(49회), 송원영(49회), 천만희(49회), 박후근(53회), 오극용(58회)

4. 총회상정안건

- ①동창회비 인상 :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 ②정기총회 관련 구분담 15만 원 15인 이하 분구에서는 열약한 재정상황 고려 없애기로
- 5. 여흥
 - ①한미경 선생님의 요들송 공연
 - ②임성영 경남대학 교수님의 소프라노 독창(41회 배재기 마산평안안과 원장사모님) / 피아노반주 김아영 선생님
 - ③이상래 김해원로 목사님의 바이스틱(자작악기) 연주
 - ④김성학(41회) 토펬연주
 - ⑤박재우(43회) 대금연주
 - ⑥박기호(55회)외 4인조 동문의 메디칼사운드 밴드연주

▶ 울산지부 제공 _ 김규호(61회) 동문

2014년

- 9월 30일, 남구 분회 모임을 삼산동 가연횃집에서 가짐
- 10월 14일, 중구 북구 울주군 분회 모임을 성남동 정원식당에서 가짐
- 10월 26일, 추계등반대회를 울산시 의사회와 함께 중구 다운동 장구목 산에서 가짐
- 10월 28일, 동구 울산대학병원 분회 모임을 삼산동 해미각에서 가짐
- 12월 16일, 삼산동 청담에서 송년회를 개최함(동문 60여 명 참석)

2015년

2월 10일, 삼산동 차일품 한정식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함

▶ 동해지부 제공 _ 이인태(56회) 동문

201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 대학원 동해지부 정기총회

2월 13일(금), 모카 컨벤션에서 동해지부 정기총회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지용철 본부 회장님과 박매자 의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용철 본부회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일인 일계좌 장학기금 동참을 호소하였고, 박매자 의전원장님께서 학교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오후 9시경에 폐회하였습니다.



기별 동기회 소식

26회 제공 _ 황일우 동문

몇 년 전부터 동창회보에 게재되는 동기 소식란에 우리 26회가 항상 빠져있어서 서운하였는데 마침 이번에 원고청탁이 저에게 들어와서 동기 소식에 소상한 송준영 동기의 자문을 얻어서 몇 마디 전합니다.

우리 동기는 57년 전인 1958년에 85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군의관으로 임관되어 6~8년의 장기복무를 한 반면 6·25전쟁에 2~3년 참여한 몇몇 동기들은 바로 사회에 진출하였으니 '인생만사새옹지마'라는 고사가 맞는가봐요.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 모두 80대 중반의 후기고령자가 되는 동안 반수 가까운(47.7%) 38명의 동기가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생존해있는 동기들의 분포는 대구 16명을 포함하여 국내 41명입니다. 작년에도 정태호, 김근주, 조종수(재미), 양태휴(재미) 네 동기분들이 작고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거동도 잘 못하는 동기 분들도 있다하니 안타깝지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작년에 작고한 정태호 동기가 생전에 학술업적을 표창하는 경북의대 동창회의 안행대상을 2015년 2월 25일 수상하여 모교교정의 각명비에 그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는 그 가족들에게 큰 영광이고 우리 동기의 자랑거리도 되지요. 고인에게 축하의 묵념을 드립니다. 작년 봄에는 경남 진주에게 제일병원을 운영하는 정희교 동기의 초청을 받고 송준영 동기와 제가 그곳을 방문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전문의가 30명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규모였고, 외과는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버지 닮아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아서 복강경수술로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병원이어서 흐뭇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기들 이제 남은 여생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끔 서로 문안을 교환합시다.

35회 제공 _ 이원순 동문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라는 노랫말과 같이 세월은 잡을 수 없이 빨리도 간다. 유수같은 세월 속에 우리 35회 동기회의 오늘을 보면, 54년 전 1961년에 청순한 여학생 2명(문행자, 육정자)을 포함하여 82명이 입학하여 1967년 73명이 졸업하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국내외에서 열심히 살았으며, 그동안 17명의 동기가 유명을 달리하여 현재 56명의 동기가 미국에 24명 국내에 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Active senior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국(24명)

강백현, 강창서, 김광준, 김문양, 김성원, 김승조, 김영길, 김영철, 노여주, 도연섭, 박대원, 박순호, 육정자, 이상욱, 이상준, 이영포, 임무웅, 전인식, 정수진, 정의일, 정태수, 최성홍, 최임석, 허련

대구(15명)

김무현, 김상도, 김영희, 김장환, 김훈남, 박동술, 박삼균, 박영남, 이두룡, 이성일, 이원순, 이장백, 장병희, 장종광, 정정길

서울·경기(6명)

김부년, 도종웅, 문행자, 손영주, 정계호, 최건필

부산(5명)

고윤표, 김대조, 송남원, 지창준, 최성탁
포항 변승렬, 안동 최유근, 울산 김용언, 합천 류창수, 김천 이충일, 기타 김태홍

우리 35회 동기회의 자랑이라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으로 만나면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말하고 싶다. 본부격인 대구에서 매월 부부 동반으로 월례회를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친구들도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매월 부부 동반으로 모이고 있는 것도 선·후배 기수들에게 자랑할 만하다. 또한 미국에서 귀국하는 친구가 있

으면 동기회 모임과는 별도로 환영 만찬을 가지며 동기애를 나눈다.



2014년 12월 정기총회

졸업 25주년 Home Coming 행사(모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30주년(미국, 캐나다), 35주년(한국), 40주년(알래스카 크루즈)을 하다 보니 5년이 긴 듯하여 그 중간 2,3년 사이에 43주년(동유럽, 러시아), 45주년(한국), 47주년(북유럽 4개국) 에도 국내·외 동기들이 함께 국내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솔한 추억거리와 우정을 나누는 것도 35회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2015년 1월 신년교례회

내후년 2017년이면 졸업 50주년이 되는데~ 그 때는 어디로 가서 또, 어떤 추억을 만들런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2015년 신년 들어 수성 관광호텔 솔밭가든에서 신년 교례회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2월은 설명절로 휴회하고, 울산 정자 참가자미 회집에서 가진 3월 월례회 모임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김성원 동기내외가 참석해서 미국 동기들의 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칠십의 고개 마루에 올라선 우리 35회 동기 모두가 건강에 조심하여, 남은 인생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멋있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43회 제공 _ 조동규 동문

2014. 8. 24,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열린 의대동창회 골프 대회에 박노문, 이광숙, 윤덕구, 조동규, 정화선이 출전하여 박노문 동기가 챔피언그룹에 선발되었으며 조동규, 정화선 동기는 특별상을 받았다.
2014. 9. 25, 대백손칼국수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2015년 5월의 졸업 40주년 행사 일정 및 예산안을 검토하였다.
2014. 10. 23,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의대동창회 전체이사회 참석, 정수기, 조병권, 최시호, 조원현, 정화선, 조동규, 지용철.
2014. 10. 26, 동창회 등반대회, 문경 주출산, 모두 19명이 참가하였다. 대구 15명 - 조병권(2), 지용철(2), 이진식(2), 전상식(2), 박봉훈(2), 정수기, 조동규, 우성구, 백태원, 이광숙, 서울 - 장운하(2), 부산 - 박재우, 김대석
2014. 12. 27, 정기모임 겸 송년회를 옛골칼국수에서 가졌다. 연말 모임의 중복으로 참석자가 줄어서 유용운, 조병권, 조원현, 조영철, 백태원, 전상식, 이광숙, 김대석, 지용철, 김건우, 박재식, 정수기 동기 등 모두 12명이 참석하였다.
2015. 1. 1, 이규석(계명대 피부과) 동기가 대한피부과학회 창립 70주년인 금년에 제57대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년.
- 축하합니다. 정덕수(대구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2014. 8) 동기와 이광윤(영남의대 약리학, 2015. 2) 동기가 정년퇴임하였다.
- 명복을 빕니다. 박병탁 동기가 지방악화로 사망하였다.(2014년 12월 8일)

50회 제공 _ 이유철 동문

2014. 12. 11, 정기총회
모교 동편 동원식당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손경락 회장의 결산보고와 이유철 총무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신임 집행부로 회장 안면중, 부회장 김종윤을 선임하였다(총무 유임). 이후 왕거미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개인동정
- 박관규 대구가톨릭대학교 제13대 의과대학장(1월 2일)
-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대 이사장(1월 19일)
- 권오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제16대 병원장(2월 1일)
- 강동기 대구파티마병원 제13대 의무원장(3월 4일)
- 혼사
- 7월 19일 김준식 장녀 한나
- 9월 21일 이유철 장남 준혁
- 9월 27일 김형수 장녀 소현
- 10월 11일 서정욱 장녀 혜진 / 김상유 장남 재현
- 12월 20일 권진우 장남 승은
- 1월 11일 조현홍 장남 지성
- 2월 7일 김경택 장남 상균
- 조사
- 12월 11일 김준식 모친상
- 2월 3일 손경락 부친상

53회 제공 _ 강현구 동문

- 경북의대·의전원 동창회 기별 골프대회 참가



8월 24일 경산 인터불고cc에서 강금모 단장을 필두로 김숙영, 김재선, 이한일, 이종성, 강현구 동기가 참석하여 동기간,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하는 즐거운 라운드를 가졌습니다. 김숙영 동기는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2. 동기회 경주방문 행사



우리 동기회에서는 매년 지역동기회를 탐방하였는데 올해는 포항·경주동기회의 초청으로 10월 18~19일 천년고도 경주

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두 37명의 동기가 참석하였는데, 올해의 테마는 '우정, 문화(역사기행) 그리고 가을'이었습니다. 백리향에서의 전국 각지에서 온 동기들과 반가운 만남, 그리고 맛있는 저녁식사, 약간의 취기를 뒤로하고, 전국의 여러 고택을 옮겨 복원한 수오재에서 포항·경주동기회에서 마련한 국악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우정과 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 가져온 200년된 고택에서의 잠자리...

다음날 기행작가 이재호 님의 인솔로 효공왕릉, 경주박물관, 남산 탐곡마을, 현강왕릉, 신문왕릉을 돌아보며 맑은 가을날을 우정과 문화로 가득채웠습니다. 이번 행사를 하고 느낀 점은 우리 53회 동기들은 개개인의 진한 향기는 있으나 거스름이 없어서 평생지기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친구들아! 이번에 초대하고 애쓴 포항·경주동기들에게 또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3. '가을 어느 멋진날' 관람



한국예총 대구회장 류형우 동기의 초대로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대구예술제 기획공연인 '가을 어느 멋진날'을 관람하였습니다. 박세영, 박창순, 신언성, 최성관, 강현구 부부가 참석하여 가을을 듬뿍 담은 말 그대로 멋진 하루였습니다.

4. 행사일정

- 4월 18일 : 정기총회
- 4월 19일 : 동기회 골프대회
- 5월 23~25일 : 졸업 30주년 기념 일본여행(간사이지방)

5. 동기 근황

- 박매자 동기 : 8월 1일 경북대의전원 원장 취임
- 최정윤 동기 : 8월 20일 가톨릭 류마티스 관절센터장 취임

54회 제공 _ 박순원 동문

1. 2014년 12월 20일 범어 세인트웨스트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동기들과 부부동반하여 일 년간의 행사를 돌이켜보고 전임 회장의 공로패 수여, 신임 회장 백효종(백효종 내과), 부회장 손효돈(효경산부인과), 총무 박순원(박순원 에스앤비의원) 선출, 억지웃음 치료 강연, 탁살클럽의 탕고와 바차타 라틴 댄스 공연이 있었다. 지난 일 년간 수고해준 정두선 직전 회장과 홍성범 총무에게 많은 박수가 있었다.



2. 지난 2월 22일 첫 동기회 신임 이사회가 안동한우식당에서 열렸다. 신임 백효종 회장과 더불어 많은 이사들이 참석하여 올해 동기회 행사 건과 동기회 회칙 수정 및 보완, 우석정 동기 안행대상 축하 격려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우석정 동기가 의료봉사 부문 안행대상을 수상하였다. 멀리 베트남 룡안에서 15년간 의료봉사를 해온 우석정 동기가 2월 25일 본교에서 각명식을 갖고 이후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행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식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2차 동기들 축하모임이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부부왕복 항공권을 후원한 모 동기도 있었고 2차 회식비를 찬조한 동기도 있어서 훈훈하였다.



4. 대구시 구군 의사회에서 동기들 맹활약하였다. 지난 회에 이어 올 회기도 달서구 의사회장에 손효돈 동기가 김태형 전임 회장에 이어 선출되었고, 박순원 동기는 중구의회 감사에 정홍우 동기는 북구의회 감사에 선출되었다.

60회 제공 _ 이응배 동문

이제 우리 60회 동기의 나이가 대체로 대입을 앞둔 자녀가 많을 때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핑계로 골프대회도 하지 못하여 얼굴을 볼 기회를 만들지 못하여 이 당시 회장으로 매우 죄송할 따름입니다.

2014년 11월 22일 저녁에 범어네거리 근처의 누들볼에서 동기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차기회장으로 한정훈 동기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 동기의 의대 흠커밍이 다가옵니다. 한정훈 회장님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한 회장님의 포부를 그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회장님을 잘 보필하여 최강의 동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는 분명히 좋은 카메라로 단체사진을 찍었는데요. 허허 누가 다 날렸답니다. 요것도 비밀~~

2015년 1월 16일 서울에서는 재경 8660 동기회가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재경동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너무 죄송합니다. 부디 우리 회장단을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서울의 모임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4일과 25일 동기 스키모임이 설원의 왕자인 용평리조트의 그린피아 콘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신임 회장인 한정훈 동기는 스키를 타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책임감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늘 참석해주는 김경주, 김지현, 김희수, 박미영, 정보우 동기 대단합니다. 특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스키모임을 잘 이끌어 준 김희수 동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상하지요? 스키모임에 스키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군의관으로 군복무 중 순직하신 동기의 자제를 위한 장학회는 초대회장이자 장학회 설립의 장본인인 김태석 장학회장의 노력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우 바른 학생으로 커가고 있습니다.(개인정보의 문제로 어떠한 실명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늘 선친의 동기인 우리 동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니까?

경조사

정재호 부친상

박범준 모친상

김정구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식

박매자 원장 취임



2014년 8월 29일, 제31대 박매자 원장 취임식이 지난 31대 서장수 원장의 이임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원장단은 교무부원장 최제용(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학생부원장 장성만(정신건강의학교실), 연구부원장/의과학과장 김인겸(약리학교실), 의학교육부원장 김정민(미생물학교실), 입학실장 김철현(재활의학교실), 기획실장 송정흠(공공보건의료사업실), 임상수기실장 성원준(산부인과학교실) 교수로 구성되었다.

의예과 신입생, 의전원 신입생 선발

의예과 신입생은 77명이 선발되었고, 고교, 대학별 통계는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경북고교〉

대구경북고교	합계	수시	정시
경신고	24	7	17
오성고	7	4	3
대륜고	5	1	4
대건고	4	2	2
해화여고	3	1	2
경북고	2		2
능인고	2	1	1
청구고	2	1	1
정화여고	2	1	1
경일여고	2		2
대구여고	1	1	
포산고	1	1	
경북과고	1		1
구미고	1		1
상주고	1		1
영양여고	1		1
포철고	1		1
합계	60(78%)	20	40

〈타지역 고교〉

타지역고교	합계	수시	정시
현대청운고	3	1	2
경기고	1	1	
서울 신목고	1		1
양천고	1	1	
잠신고	1	1	
휘문고	1	1	
인천 국제고	1	1	
안양외고	1	1	
광주 인성고	1	1	
공주 사대부고	1		1
군포고	1	1	
제주 신성여고	1		1
제주오현고	1		1
창원 문성	1		1
창원 봉림	1		1
합계	17	9	8

의전원 신입생은 110명이 선발되었다.

출신대학교	합계	수시	정시
경북대학교	16	8	8
연세대학교	15	8	7
고려대학교	16	9	7
한국과학기술원	9	8	1
서울대학교	10	7	3
포항공과대학교	4	2	2
영남대학교	5	4	1
성균관대학교	4	2	2
경희대학교	3	2	1
한동대학교	4	2	2
대구가톨릭대학교	1	0	1
외국대학교	4	3	1
한양대학교	5	3	2
기타	14	4	10
합계	110	62	48

출신교교지역	합계	수시	정시
대구	38	26	12
경북	14	7	7
서울	17	9	8
인천·경기	17	7	10

114명 국시 합격 및 졸업식

2015년 1월 9~10일 양일간 치른 국시에서 경북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생 114명이 모두 합격하였다. 100명이 넘는 큰 의대에서 전원이 합격한 경우는 경북대가 유일하였다. 특히 일본인 학생인 이세이 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여 이룩한 쾌거로 모두 기뻐하였다. 또한 109명의 학생이 2015년 2월 25일, 83회 졸업생으로 본교의 새로운 동창이 됨과 동시에 졸업을 하였다.(2015년 2월 25일 졸업식)

인사

- 이재태 교수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취임(2015년 1월 20일 수요일 10시)
- 2015년 2차 신입교수 발령(3월 2일 월 9:30 본관5층 중앙회 의실)
-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퇴임
-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퇴임 : 정제명, 백은이, 박재용 교수

기타

◆ 세월호 사건으로 행운제는 생략하고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2014년 10월 9일 9:00~17:00

장소 : 경북대학교 본교 대운동장

◆ 장례식



아무런 대가 없이 시신을 기증하여 다음 세대의 의사와 의료인을 육성하고, 의학의 기술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시신기증'이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을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해부실습 후 이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원장님, 동창회장님,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유족들이 모여 교정에서 엄숙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2014년 10월 25일)

◆ 2015년은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해로 분주한 한 해가 될 예정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논문 시상식

글 _ 강창수(30회) 동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100여 년 만에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 및 장학금수여식이 졸업 30회로 말미암아(2012년 5월) 좋은 출발을 하였고, 31회와 32회 동창생님들이 모교 방문사업을 이미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정착성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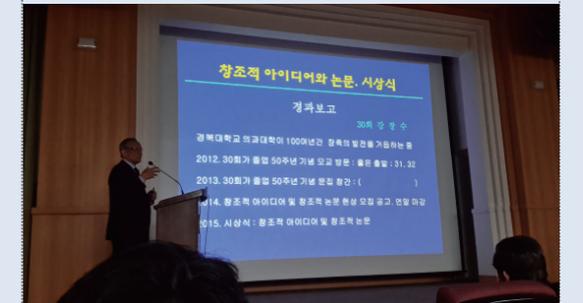
30회 졸업 50주년 기념문집이 창간(2013년 11월)되어 동기, 31~40회에 각각 2부씩, 전국 시·도의사회에 한 부씩, 전국 의과대학(병원) 도서관, 재미(동기와 경북의대 동창회)에 배송을 하였습니다. 매월 원고를 계속 독촉하면서(늘어서 서가에 꽂힌 전문서적들은 다 버려지더라도 눈 감는 순간까지 남아 있거나 자녀에게 넘겨줄 책은 30회 동기의 문집일거라고, 잘잘못을 고사하고 진실하고 주옥같은 글 한두 편을 꼭 보내달라고) 느닷없이 미국에 있는 박희성(Nephrology) 동기가 원고와 함께,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창수야 50주년 해 총무로 또 기념문집까지 낸다고? 학회로 clinic으로, 교회활동으로 고생하며, 펄펄 뛰는 네 모습을 보니 I envy you! 여기 1,000\$를 부치니 문집출판 비용에 보태서 써주면 고맙겠네." 답신으로 "희성이, 스스럼없고 통근 재호 결정! 송금주 강명희 여사에게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라.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라!" 보냈습니다. 문집 p274 후원자 명단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명단은 미국에 있는 박희성 동기가 문집발행에 보태어 써달라고 1,000\$를 보내온 정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출판에 쓰고 남은 금액은 선한 손들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귀한 곳에 쓰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의전원 재학생들을 위한 가치 :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논문 현상모집'을 아예 문집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모든 씨앗 중에서 겨자씨(Mustard)가 제일 작으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살아 숨선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음 20년, 30년, 50년 이전에 노벨의학상이 경북의대에서 수여받게 된다면 이 겨자씨의 생명력인줄 알겠습니다. 학교 당국 승인된 공고문(2014년 12월 31일 마감)을 게시. 2014년 행사인 아이디어, 논문 현상모집 결과에 하루가 민망, 초조했습니다. 2014년 연말에 거의 일시에 접수된 완전논문(4편)과 아이디어(14편)를 합쳐 18편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흥

분을 하였고, 당국자들도 반가워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이 43명이었습니다. 분포를 비교했더니 한 논문에 4년생이 1명, 8명, 8명, 단독 1명, 3년생이 6명, 1년생이 6명, 2년생이 3명 그 외는 단독 아이디어였습니다. 공고가 나 불고 일년이 채 못되는 세월동안 11명, 8명, 7명, 6명, 3명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가감하는 과정들을 상상해보고 그 어렵고 힘들던 지난날을 회상해 봤더니 장하고 눈물겹고, 얼마나 능름한지 이들에게 계기만 주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판 잔여금 650여만 원으로 Incredible Potentiality를 가진 재학생 43명을 흥분시켜 의기투합하게 했으니 패기만만한 이 젊은 청춘후배(아니 손자, 손녀뻘)는 내년 또 내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서류심사와 PPT Slide Projection 발표 함께로 최우수상을 받게 될 의전학생은 1학년 박한나 양이었습니다.

'2014 창조적인 Idea와 논문'은 2015년 3월 27일 오후 5시 반경에 시상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장수 전 의전원 원장님, 이병헌 전 연구부원장님, 김인경 연구부원장님, 배재성 교수님, 당락을 고사하고 심사한 Idea와 논문들을 유관 교수님들과 연결, 논문작성에 격려를 부탁드리고, 국내연구비 신청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특히 지용철 동창회장님, 박매자 의전원장님 33회, 34회 임원님들께 차기 행사를 진지하게 부탁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소식

제37대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조병채(52회) 동문



2014년 4월 18일, 경북대학교병원 제37대 병원장으로 조병채 동문이 임명됐다. 조병채 동문은 지난해 2월 이사회에서 선거를 거쳐 차기병원장 후보에 오른 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조 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애도하고 온 나라가 실의에 빠져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공식적인 취임식을 취소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먼저 보직자를 새로이 임명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의 명성에 걸맞은 친절환 병원, 사회공헌 대표병원 실현을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취임 후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등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이나 원칙을 중시하는 조 원장은 직원들을 한 식구로 여기며 전체 직원들을 위한 카리스마

를 발휘하여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였다.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본원을 중심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및 치과병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복구 학정동 칠곡병원 내 임상실습동 건립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본원 응급병동 중증권역외상센터 완공을 위한 헬리패드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협력 병원·의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진료의뢰센터 확충 등 지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또한 환자를 위한 친절을 기본으로 환자가 병원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옛 건물의 구조상 복잡한 동선도 줄여보고자 하며 끊임없이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 및 저소득층 무료진료 확대 등 그 외에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의 명성에 걸맞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병원의 중점사업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위하여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위하여 각 보건소에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경북대학교병원 합동검진으로 산간벽지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지방의료원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의료인력을 파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인 경북대학교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랑을 담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진료용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지방이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몸튼튼, 꿈튼튼 지원 사업으로 취약 아동 및 청소년 환아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및 어린이 병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농협경북지역본부 지원사업인 농촌사랑 의료지원 사업은 경북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제50보병사단 의료업무 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군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군장병들의 응급질환에 관한 기초의학상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 내 교육기관인 대구동덕초등학교와 우리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성하고 의료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환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취약국가의 열악한 의료수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제공하여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 김인주(47회) 동문

인터뷰 _ 김인겸 공보이사



Q1. 흔히 말하는 인기과 '피·안·성' 그 중에서 피부과를 전공 하셨습니다. 처음 피부과를 전공하고자 했을 때, 피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나요? 피부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nswer 제가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내·소·산(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성기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인턴을 하고 소아과를 하고 싶었는데 당시 병원 측에서 여의사들은 소위 메이저과 레지던트로 채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 여의사 인턴들이 쫓겨나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성차별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법률적 보호가 없던 때라 진로에 방황하던 중 모교에서 피부과 전공의 모집시험이 있다는 정보를 친구가 전해주어 무작정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합격되어 전공의 수련을 받게 되었는데 생각 외로 피부과는 medical part와 surgical part가 다 포함되어 있어 학문적 재미와 술기습득도 할 수 있어 즐겁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피부과가 '피안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피부과가 톱 인기과였고 1997년 제가 잠시 미국에 갔을 때 보톡스와 레이저, 지방흡입 등 미용시술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시술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니 한국에도 여드름치료와 미용시술이 시작되고 있어 배운 것을 임상에 활용하기에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Q2. 부부가 같은 전공으로 같은 의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

answer 같은 전공인 저희 부부에 대해 주위에서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교직에, 한 사람은 개원을 하라고 권하기도 하였고, 각각 다른 곳에서 개원하여 돈을 많이 벌지 왜 한 곳에서 재능낭비를 하느냐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하면 교대로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따분할 것이다', '자주 싸우지 않겠나' 등 시적이 분분하였지요. 저는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모로 편리하였고 오히려 일에 대한 공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을 뿐 아니라 환자도 각각의 관심분야에 따라 보게 되니 의외로 독립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개원 초기에 할머니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옆방의 총각 선생님이 잘 생겼는데 중매하고 싶다." 하여 깜짝 놀랐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부부가 한 병원에 근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저는 그때 시집살이에 골몰한 완전 아줌마였는데 남편은 타고난 동안이라 '그럴 만도 하다' 하며 한바탕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끔하였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머리카락만 검으면 청년처럼 보이는데 은발이

좋다며 염색을 안하려고 하니 다행이지요.

Q3. 동문들 사이에 선생님은 팔방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악, 무용 등 재주꾼이시잖아요? 타고난 소질인가요?

answer 소문과 사실은 다를 때가 많지요. 그저 몇 가지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 내물을 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팔방미인이 되기보다 한 가지에 통달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에 득도하여 얻는 기쁨과 자유는 몇 가지를 조금씩 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지요.

의대 클래식기타동아리 현우회 시절과 미술동아리 아름희 활동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 진료실 한구석에 기타와 화구를 세워놓고 기회를 엿보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전문의가 된지 20년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던 욕구를 꺼내볼 수 있어 옛집 찾아가듯 조금씩 보아도 젊을 때 터득하여야 할 때를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노래와 한국무용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구조와 호흡의 생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늙어서도 즐거움과 운동이 될 것 같아 계속하고 싶습니다. 최근 의사회 합창단에서 나의 소리를 조심스레 섞어 화음을 이루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기쁨에 폭 젖게 됩니다. 합창은 공연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습 자체가 단원 서로서로에게 어우러짐으로써 봉사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가끔 새로 인생을 시작한다면 연극배우가 되려하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보지만 예술가가 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참 행운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고통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의사가 되는 과정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이며 타고난 주어진(gifted)이 없으면 예술을 통한 자유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프로가 될 만한 예술혼이나 탠트는 없다는 걸 알기에 직접 표현함으로 얻는 극치의 희열을 맛볼 수는 없지만 오아시스처럼 목마름을 풀 수 있는 곳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Q4. 지역사회(종교단체)를 위해 또 학교를 위해서도 거액을 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answer 저의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매우 아끼시던 땅을 장남 손재경 원장과 며느리인 저에게 증여해주시고 유용하게 쓰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대구기톨릭병원 옆의 동산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 후학을 위해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 2002년 가톨릭의과대학에 기증하였고 작년 바로 그 자리에 류마티스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류마티스센터 건물이 시어머님의 영세명

을 따라 데레사관으로 이름 짓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외 종교단체나 동문회, 지인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조금씩 보태기는 하였지만 마음으로 항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무엇이 잘나서 의사가 되어 남들에게 인사받으며 일하고 있나 생각해봅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라는 말 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존경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을 인사와 치료비를 다 받았으니 서비스는 덤으로 해야 공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남들보다 더 힘들어 공부했으니 당연히 상류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도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와 좋은 머리를 운 좋게 내가 받은 것이니 오히려 더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Q5.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존경받고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nswer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존중받는 직업인데 더 인정 받으려 하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리를 침범 당하거나 인정을 못 받을 때 반응하는 태도에서도 더 실망을 초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닌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의사의 권위가 추락한 것은 이런 자긍심이 없이 권위만을 찾으려 하다가 더 추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의사의 본분을 생각해 보고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의사는 사회지도층에 있을 경우가 많지만 사회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의사 개인의 평소의 행동과 말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층은 사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직업상 환자를 교육하고 명령(order)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장 힘든 부분을 낮게 해주기 위한 직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이러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받쳐주는 위치에 서야 참다운 존경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Q6. 후배 동문들에게 인생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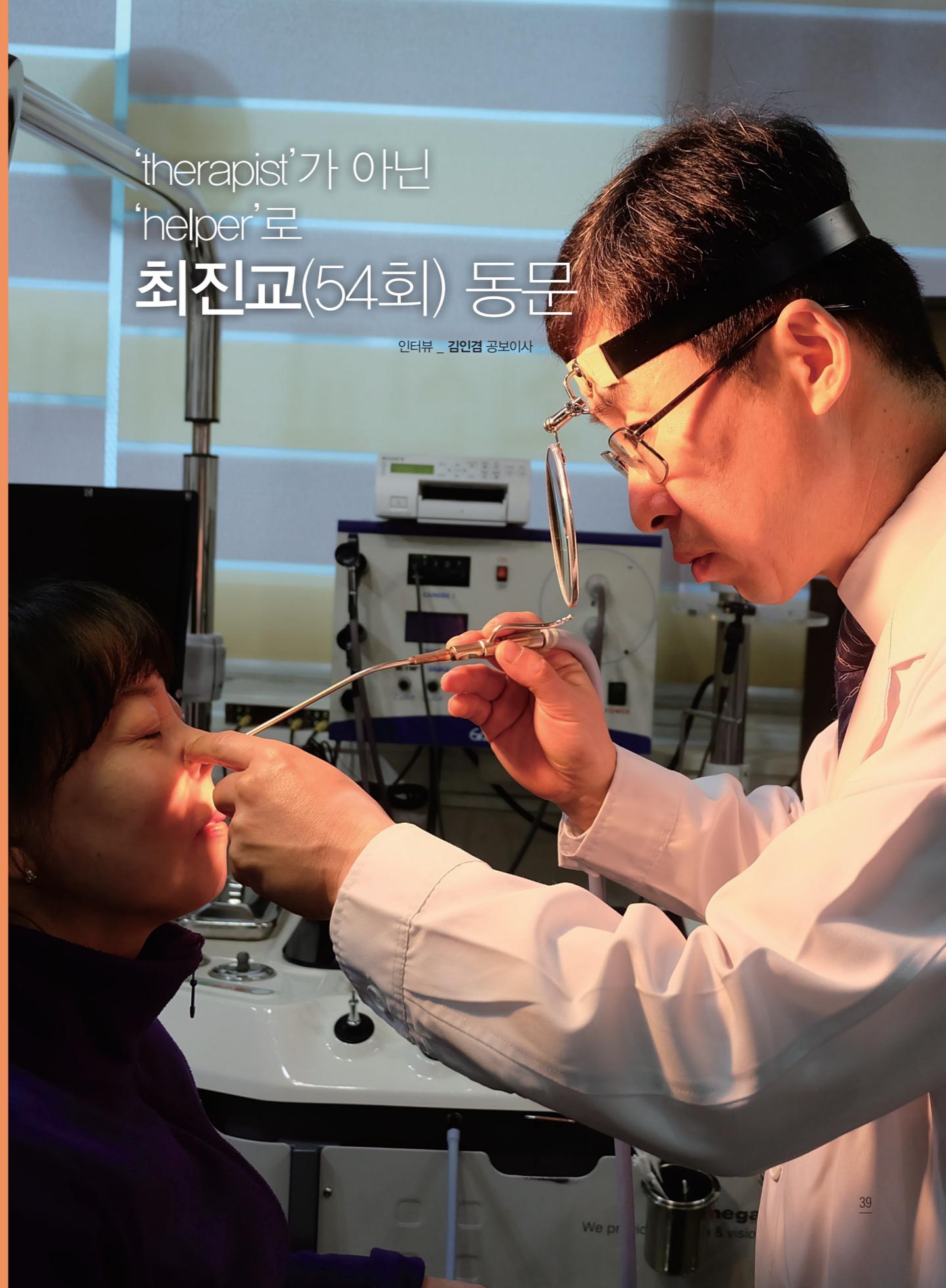
answer 몇 년 전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의뢰받아 고교생과 일반인에게 부족한 소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였는데 이미 의사가 된 후배들에게는 꼭 다

시 한 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의사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불행한 통계가 사실인 것을 가까운 곳에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 실천하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의사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공부하는 직업이며 동시에 진리를 실천하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우선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솟아나는 욕구가 무엇인지 잘 찾아내어 어떤 의사로서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포부가 하늘의 뜻에 부끄럽지 않으면 곳곳이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참으로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참으로 행복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안성' 뿐 아니라 의학의 모든 과목이 찾아보면 '황금오리'같은 부분이 있으니 자신의 전공을 깊이 공부하면 후회없는 의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인문학과 윤리, 그리고 예술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형이하학이 형이상학과 어우러져 잘 조화된 인격의 완성으로 나이갈 때 진정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이웃과 사회에 넘쳐갈 수 있다고 봅니다.

Q7. 앞으로 은퇴 후의 계획이 있다면요?

answer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은 너무 많은데 벌써 6학년이 되었습니다. 40대부터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매달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 나도 곧 이렇게 늙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친지를 비롯하여 주위에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작년에 Thanatology(임종과 죽음에 관한 학문) 공부를 시작하여 미국 임종교육학회의 죽음전문가(Thanatologist)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과 완화병동의 호스피스 정도가 죽음을 도와주고 있는 봉사자로 활용되고 있지만 Thanatologist는 말기환자 뿐 아니라 노인, 사고로 충격받은 자, 자살시도자, 사별한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전문가이며, 일반인에게도 인생을 의미있게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의외의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영혼과 육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에 의사로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되어 남은 열정을 모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therapist'가 아닌 'helper'로 최진교(54회) 동문

인터뷰 _ 김인겸 공보이사



Q1. 선생님은 창녕이 고향이신데, 이곳 포항에서 개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nswer 창녕에서 출생하여 1970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로 유학을 와서 초·중·고를 대구에서 졸업, 모교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공중보건으로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그 후 1993년부터 포항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약 6년간 봉직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약 400~500건에 이르는 두경부암을 제외한 다양한 수술 환자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에는 큰 연고 없이 개원하게 되어 20여 년이 훌쩍 지나게 된 것 같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Q2. 학창시절에 소위 말하는 공부벌레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하지 않고 개업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는가요?

answer 다른 동기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신데 반해, 저는 도서관에서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느라 공부벌레처럼 비춰져서 그렇지 공부벌레라기보다는 조금 열심히 하는 정

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김인겸 교수님이 훨씬 더 공부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의 희망은 개원보다는 강단에 서보는 게 꿈이었고, 특히 '두경부외과'를 전공해보고 싶었지만 저희 때는 지금과 같은 'fellow' 제도도 없었고 의국 선·후배님 중에서 뛰어난 분들도 많고 여러 여건상 개원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개원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에는 두경부암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드레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이삼십분 정도 드레싱을 하고나면 보호자 분이 촛지로 담배 한 갑 혹은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몰래 가운데머리에 넣어주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성모병원 시절에는 천식이 동반된 심한 '부비동염 및 폴립' 환자 수술 후 병실에서 '천식발작'이 발생하여 Intubation(기관삽관술)을 시도하다 손가락을 깨물린 일이 있습니다. 어렵게 내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Intubation 후 환자를 돌보느라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밤을 교박 병원에서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완쾌되어 요즘도 외래로 한 번씩 찾아오곤 합니다.

개원의 시절에는 외이도염으로 내원한 12세 여자환자와, 코피로 내원한 13세 남자환자로 축진상 갑상선 혹이 발견되어 초음파 및 조직검사상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완쾌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개원하다 보니 제가 성모병원 시절 수술이나 진료받았던 환자들이 부모님이 되어 아이와 함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Q3. 따님도 모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 다닐 때와 지금 따님이 학교에 다닐 때, 고객만족(학생이 만족하는)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나요?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면 고객만족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answer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다닐 때와 지금은 수업이나 교과과정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나 한 98점 정도, 백점은 완벽한 점수라 너무 완벽하면 완성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은 언론이나 사회분위기가 지방대

와 서울소재 대학을 구분하여 지방대학을 낮추어 얘기하는 언론을 접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모교에 게시는 교수님들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로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빅파이브' 병원을 능가하는 임상 실력이나 논문을 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4. 학기마다 따님의 등록금만큼 추가로 장학금을 내고 계십니다. 특정학생을 도와주시는가요?

answer 제 동기인 응급의학과 '서강석' 교수님의 추천으로 현재 재학중인 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서 이 학생이 나중에 다른 후배들을 위하여 다시 장학금을 회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Q5.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answer 동창회 동해지부는 제가 처음 왔을 당시에는 약 50여 명 내외였지만 현재는 약 100여 명 정도로 동문회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회원수도 많아지고 과거처럼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나 질서, 참여의식이 부족해짐으로써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수가 많이 줄고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부터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본부동창회를 비롯한 각 지부 동창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제가 주로 참여하는 기수별 테니스대회는 과거보다 참가회원수가 너무 줄어 대회의 명맥만 겨우 유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만이 동창회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서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대인의 밤' 행사를 통해 모교교수님을 대상으로 '올해의 교수상'을 시상한다든지,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전

공의상'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동창회는 동문들이 모교뿐만 아니라 타학교에서도 후학양성과 교육,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교 위상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6.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개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선배님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answer 제가 개원할 당시에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의사수가 적어 경쟁이 덜 치열하였습니다만 현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은사이신 박준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사는 환자를 낮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남습니다. 'therapist'가 아니라 'helper'로서 환자를 내 아이나 형제, 부모님처럼 진솔하게 대한다면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각 연수회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최신지식이나 수술방법 등을 습득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서 환자를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는 문화적인 면, 예를 들면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것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여가시간을 활용 예를 들면, 테니스나 기타 운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로서 백지상태인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환자 보는 법, 환자를 대하는 자세, 수술 등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박준식 교수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동문탐방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아오신 동문들을 만나기 위한 퇴직동문탐방은 퇴임을 준비하시거나 퇴임을 하신 경북의대 동창회 동문들을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박일수(40회) 동문

박일수 동문은 1973년 모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 1981년부터 33년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84년부터 1년간 미국 뉴욕 마운트사이나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솔로안 캐터링 암센터 및 일본 동경 암연구소에서 부인암 분야를 연수하고 그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 내 여러 자학회에서 많은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 학회에서 많은 논문발표를 하였다. 또한 경북의대 교수회 의장으로서 교수회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으로서 사회봉사를 하였다. 현재 정년퇴임 후 경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건수(41회) 동문

이건수 동문은 1973년 모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소아과를 수료 후 군복무를 마치고 1981년 5월 본 대학 소아과학교실에 전강~교수로 근무하였다. 학생과 전공의 교육, 연구 그리고 유전, 소아 혈액 및 중앙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염색체 검사실을 신설하였으며, UCLA 소아혈액종양분과에 3회에 걸쳐 1년 4개월 연수하였다.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회장,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장, 대한소아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Asia Hematology Association 회장, AsiaCORD 회장,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logy 대의원, Advanced Neuroblastoma Research Association 고문을 맡아 본교를 국내외에 빛내고 있다. 2005년 Asia Hematology Association 그리고 2013 East Asia Hemophilia Forum 한국개최에 의장을 맡았다. 또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혈우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2006)과 대통령표창(2009)을 수상하였다.

홍정길(41회) 동문

홍정길 동문은 1973년 모교 졸업 후 1978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군의관 복무 후 1981년 5월부터 경북의대 마취통증의학과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홍 동문은 대한마취통증의학과 대구경북지회장, 대한마취통증의학과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통증학회 대구경북지회를 창립하여 초대 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경주동국대병원 통증치료실에서 통증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고 있다.



김성구(42회) 동문

김성구 동문은 1974년 모교를 졸업 후 인턴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1983년부터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한심장학회, 고혈압학회, 심초음파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2000년부터 4년간 순천향대학병원 내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2005년에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순천향대학병원장을 2회 연임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순천향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을 총괄하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2회 연임 중이며 정년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현재 직위로 재직할 예정이다. 1995년부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주치의로 건강을 보살피고 있으며 2014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정제명(42회) 동문

정제명 동문은 1974년 모교를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외과에서 수련을 시작하여 1979년 외과 전문의 취득 후 백령도 해병 의무 중대장과 의무 참모를 하였다. 강북삼성병원 외과 스텝을 거쳐 1984년 미국 마운트사이나이 병원과 스톤캐터린 암센터에서 항문병, 유방암, 경부 외과를 연수 후 마산삼성병원 외과과장, 1987년 한림의대 외과조교수를 거쳐 1988년 부인과 함께 정제명외과, 이소아과의원으로 개원하였다. 외과 의사로 지내던 중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에서 제안이 들어와 선진국의 응급의로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계기로 시작하여 1994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재직중 1996년 응급의학전문 자격을 취득 후 2001년 경북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로 부임 후 응급의학과장 및 응급의학과주임교수로 진료 및 대구시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2년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 및 대한응급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2003년도에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장으로 위촉되어 의무분야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삼남응급의학회장, 권역응급의료센터협의회 회장,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의무위원장,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소장, 2012년 대한응급의학회장의 보직을 무사히 끝냈다.



백은이(44회) 동문

백은이 동문은 1976년 모교를 졸업하고 모교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를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84년 모교에서 전임강사로 출발하여 후진양성 및 진료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기간 중, 학교 보직으로는 생명의학연구원장을 거치면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거점연구센터(RRC, 1998~2007, 총 사업비 83억) 공모 시 총괄 지휘하여 연구 사업을 수주하였다. 백 동문은 대한마취과학회 수련이사, 50대 대한마취과학회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병원 봉사활동으로는 진료차장, 생명의학 연구소장, 칠곡병원 건립추진단장, 제36대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원장 재임 시 매월 1회 금요일 격오지 농촌진료사업에 매진하여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상(국무총리표창, 2014) 수상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모교병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지정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모교 및 병원의 위상을 드높였다. 병원 외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정능수(48회) 동문,

범죄예방활동 기여 법무부장관 표창



정능수 동문이 법무부장관(황교안)으로부터 비행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사업 지원 등 범죄예방활동에 진력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목)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정능수 동문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1995. 6. 1~1996),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1996~2014. 2. 28), 법무부 법사랑위원(2014. 3. 1~현재),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의성지역협의회 의성지구 회장(2013. 3. 1~2014. 2. 28),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의성지구 회장(2014. 3. 1~현재)으로 활동하면서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바 있다.

김광만(51회) 동문,

제16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출



김광만 동문이 제16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김광만 동문은 현재 포항시 남구 지곡로 소재 지곡그린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김광만 동문은 포항시의사회 정책이사, 의무이사, 부회장,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공보이사, 기획이사,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등 의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김재왕(51회) 동문, 제43대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선출



김재왕 동문이 제43대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월 21일(토), 호텔 인터불고 대구 클라벨에서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왕 동문은 현재 안동시 중앙로 소재 김재왕내과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왕 회장은 안동시의사회 이사, 기획이사, 회장, 감사, 윤리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 의료일

원화사업전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의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성민(51회) 동문, 제12대 대구시의사회 회장 선출



박성민 동문이 제12대 대구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월 26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대구시의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성민 회장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성민 신임 회장은 “회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 왜곡된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동료의사들과 함께 의사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황성주(62회)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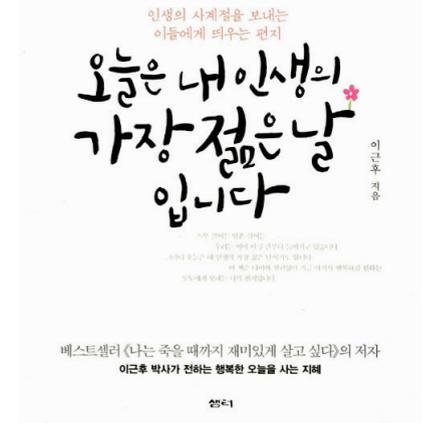
세계모발이식학회(ISHRS) 총무이사 선출



황성주 동문이 2014년 10월 8일부터 11일 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모발이식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Hair Restoration Surgery)' 제22차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총무이사로 선출됐다. 세계모발이식학회(ISHRS)는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의료협회로서 전 세계 60여 개국 1,300명 이상의 의사로 구성된 탈모와 모발이식에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다. 황성주 동문은 현재 대한모발이식학회(KSHRS) 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2011~2012년 아시아모발이식학회(AAHS)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 구의사회 경북의대 동문 회장 선출

대구 구의사회에 경북의대 동문들이 회장에 선출되어 구에서 활발한 역할을 펼치고 있다. 달서구 손효돈(54회) 동문, 동구 권윤정(56회) 동문, 수성구 김희석(56회) 동문, 서구 정홍수(58회) 동문이 2015년 각구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저자_이근후(29회) 동문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베스트셀러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 이근후 박사가 돌아왔다. 나이들의 진정한 의미와 유쾌한 노년의 삶을 전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전한다. 25세까지의 봄은 학습, 50세까지의 여름은 적응, 75세까지의 가을은 참회, 그 후 겨울은 자유의 시가다.

“스무 살이든 일흔 살이든 우리는 이미 이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원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입니다.”

50여 년간 정신과전문의로 살아온 저자는 팔순의 나이를 맞아, 인생의 각 단계를 저마다 힘겹게 넘기고 있는 모두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총 4부로 구성,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를 담았다.

전 세대를 다룬 책인 만큼 사춘기 손자가 노년의 할아버지와, 황혼의 부모가 결혼을 앞둔 딸과, 학부형이 된 아들과 은퇴한 아버지가, 서로가 함께 들려주고 묻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책에는 작은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세대마다 선호하는 글자 크기를 고려해 각 부마다 글자 크기를 달리하였는가 하면,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의 대표 작가 박병철이 이 책을 위해 쓰고 그린 캘리그래피는, 저자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한 언어로 빛나게 한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2014년

7월 12일	차순도(46회)	장녀
7월 20일	김준식(50회)	장녀
8월 23일	김미주(73회)	본인
8월 30일	김광수(47회)	장녀
9월 21일	이유철(50회)	장남
9월 27일	권태찬(42회)	장녀
9월 27일	김형수(50회)	장녀
9월 28일	이재경(49회)	장남
10월 11일	김상유(50회)	장남
	서정욱(50회)	장녀
10월 18일	김태한(32회)	장녀
11월 15일	김현준(49회)	장남
11월 29일	배성일(52회)	장녀
12월 13일	윤성도(38회)	아들
12월 20일	권진우(50회)	장남
	이충기(51회)	장녀
12월 27일	김진모(42회)	장남
12월 28일	유영구(47회)	아들

2015년

1월 11일	조현홍(50회)	장남
1월 17일	손은익(48회)	차남
1월 18일	김수동(54회)	장녀
2월 1일	정제명(42회)	아들
2월 7일	김경택(50회)	장남
	이진우(53회)	장녀
4월 5일	윤상기(45회)	차남
4월 18일	박창순(53회)	딸
4월 25일	정상호(44회)	장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7월 3일	천임순(57회)	모친상
7월 15일	박윤엽(56회)	장인상
	정성훈(56회)	부친상
8월 20일	박진석(45회)	본인상
8월 25일	권오경(66회)	부친상
8월 26일	서호철(53회)	장모상
9월 15일	김영애(57회)	모친상
9월 23일	이성수(59회)	장모상
9월 26일	이충렬(50회)	장모상
10월 1일	윤경식(47회)	부친상
	길영태(50회)	장인상
10월 6일	조원현(43회)	장모상
10월 25일	이헌주(45회)	시부상
10월 27일	전동석(47회)	부친상
10월 31일	김성호(45회)	장모상
11월 8일	우창근(63회)	장인상
11월 9일	김봉석(31회)	부인상
11월 11일	백종흠(29회)	본인상
	조현정(61회)	부친상
11월 24일	박영식(48회)	모친상
11월 25일	서호철(53회)	장인상
11월 26일	류만준(51회)	본인상
12월 7일	권달만(28회)	본인상
12월 8일	차충석(21회)	본인상
12월 9일	김영환(61회)	장인상
12월 11일	김준식(50회)	모친상
12월 12일	정태호(26회)	본인상
12월 19일	김동화(62회)	모친상
12월 26일	손수준(53회)	부친상
12월 30일	김윤년(48회)	부친상

2015년

1월 3일	김광훈(44회)	모친상
1월 4일	이상무(51회)	부친상
1월 13일	천임순(57회)	시부상
1월 16일	오훈규(58회)	부친상
1월 25일	이명권(64회)	부친상
1월 31일	정성훈(56회)	모친상
2월 3일	손경락(50회)	부친상
	박범준(60회)	모친상
2월 11일	이종주(44회)	부친상
	김건오(54회)	모친상
	장정식(74회)	부친상
2월 15일	심민철(41회)	부친상
	김태엽(64회)	부친상
2월 17일	이장희(49회)	모친상
	이종민(57회)	모친상
2월 20일	구명숙(58회)	모친상
2월 23일	박희명(13회)	본인상
2월 25일	윤경식(47회)	모친상
2월 27일	이창호(47회)	모친상
3월 2일	윤기성(56회)	장인상
3월 7일	상영호(55회)	부친상
	임종섭(55회)	장인상
3월 11일	최성관(53회)	부친상
3월 17일	이정익(69회)	부친상
3월 18일	김갑병(47회)	모친상
	이택후(52회)	모친상
3월 27일	이봉렬(59회)	부친상
4월 2일	송문원(29회)	장모상
4월 4일	손경락(50회)	장인상
4월 6일	김지화(58회)	부친상
4월 11일	배병조(44회)	모친상

천명(天命)으로 돌아온 학형! 백종흠 형의 영전에

아! 오늘은 슬프디 슬픈 날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오후 11시(갑오년 윤9월 19일 무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부음을 이튿날 9시경 승철 군의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문안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억눌려 정신이 아찔하고 한발 띄어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재시절의 우리는 한 스테디 그룹이었습니다. 홀로서기를 다짐하고 의형제까지 맺었던 신영식, 박수훈, 이근후 그리고 이 소제 님은 성적이 우수(優秀)하지만 외롭게 보였던 학형(學兄)을 영입하자는 의견에 이구동성으로 합의 환영한바 쾌히 승낙하시고 공부는 함께 하며 철모르는 아우들을 아울러 주시고 다독거리 주셨던 든든한 대형(大兄)이었습니다.

학형은 시대를 잘못 만나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적진(敵陣)에서의 포로(捕虜)생활 3년이라는 6·25동란(動亂) 중의 역경(逆境)에서 천명(天命)으로 돌아오시어 이 아우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남다른 형으로 생각하고 형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들의 값진 간접경험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미래(未來) 인생의 행로(行路)를 추슬렀던 것입니다.

강냉이 알 한줌으로 한 알 한 알을 세어가며 입에 넣고 장시간 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발진티푸스로 옆자리 동료들이 주검되어 들것에 실려 나가더라는 말은 지금도 이 소제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수숫대 가리에 핑처럼 머리만 박고 숨어 있는데 “이봐! 동무! 손들어!”라는 뒷전에서 낫선 목소리에 전신을 떨며 겨우 일어서서 보니 중공군이었던 동창회보에 투고한 이야기 또한 놀랍고도 기가 막히는 순간이었음은 마치 내가 직접 겪는 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 학제는 17세 소년으로 남한에서의 피란길을 노숙(露宿)하며 바닥이 배에 닿는 군위(軍威)의 땅 재를 넘으며 버려진 신생아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처절한 피난행렬 속을 헤맸지만은 형의 절대선상(絕對線上)에서의 경험에 비하면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뽕뽕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로 한 의형제들은 다 헤어지고 이 고장에는 대형과 그 후 다시 영입한 박영춘 그리고 이 소제(小弟), 셋만이 남아 추억을 반추하며 성실한 사회봉사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학제(學弟)가 모교 예방의학 교단으로 돌아왔을 때 대학원 과정을 거친 학형은 아우가 몸담았던 예방의학 박사(博士) 동문회에서 활동을 함께 하여 정말로 든든했었습니다.

학형은 방하착(放下着), 지난 일 다 잊어버린 듯 그 허허로운 너털웃음으로 즐거운 한 때를 지내

도 했습니다. 또 동인동 로터리 제일정형외과의원(第一整形外科醫院)은 이 아우의 가정적 정형외과 주치의원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학형과 함께 경주 신라구락부며 동춘 K2 구락부를 들락거리며 건강관리를 함께 하며 영원한 건강을 지키고자 약속도 했습니다.

백형! 그러다가 새벽녘에 K2로 가는 도중에 칠성동 도시고속 고가도로 밑에서 이 아우의 고급고물자동차에 불이 나서 당황하던 일 기억하시지요! 그 후 이 아우는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새 것으로 바꾼 이후 그런 급한 일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일들이 우습기도 하지만 쓰라린 일들이 수없이 불현 주마(走馬)처럼 뇌리(腦裏)를 지나갑니다.

백형은 연륜이 수년 높으면서도 이 아우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동기에 거의 전회를 거쳐 빠지지 않고 함께 하여 지주(支柱)가 되어주신 훌륭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아드님을 따라 진주(晉州)로 이사를 하신 이후 또 이렇게 유명(幽冥)을 달리하시니 이 아우의 고독감(孤獨感)이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한편 인연(因緣)은 계속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추구(追究)하던 의학 바탕에 반연(絆緣)의 고리로 후세(後世)들까지도 함께하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승철, 성무 형제가 형의 업장을 이었고 또 이 아우의 자식 형제 역시 우리들이 못 다한 일을 이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에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되새겨봅니다.

부디 극락왕생(極樂往生)하시어 애국(愛國) 애족(愛族) 그리고 우리 동창을 무극(無極)으로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극락의 광명(光明)을 온 누리에 비쳐 어둠에서 허덕이는 중생(衆生)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뜻 깊은 올창주 한 잔 올리니 음미하옵소서! 尙饗

2014년 11월 14일
경북대의대 제29회 대표 김두희 재배



어려울 때 이마를 맞대던 선배님 정태호(鄭泰浩) 교수의 靈前에

아! 2014년 12월 12일의 부음이 하루 지난 저녁에 날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마음에 잡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문안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아찔, 한 발 띄어 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태호 先輩님! 슬프디 슬픈 오늘입니다. 너무나 다정하셨기에 교수님이라 부르기보다 先輩라 부릅니다. 만약 이 學弟가 모교 교단을 일찍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더 다정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다소의 불만을 참지 못하고 훌쩍 떠났으니 선배를 대할 면목 없었지만 그 사이 그만 이렇게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인생의 서글픔이 더욱 느껴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先輩님이 바라던 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모자람이라 할까! 부득이 떠났었지만 역시 이 근방에서 멀리 가지 못했음에도 가끔이라도 방문치 못한 일, 무한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선배님의 至高至大한 충고 말씀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못한 이 學弟의 꺾전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先輩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 고사하고 1968년 모교 기초교단에서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머리를 맞대었을 때 先輩님은 부족한 이 후배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발전 방향으로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가자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1970년대 초에 전국 국립대학 교수 협의회가 경북대학교 본부에서 열렸을 때 선배가 앞장서서 발언하여 우리들이 요구하던 대정부건의항목을 반영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식 티오를 붓게시킨 일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학제도 근신하면서 연구생활을 활발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시의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송하게도 이렇게 영전에서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이 학제는 모교에서 떠났었지만 先輩와 같은 교수가 모교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터져 나오는 굉성(宏聲)을 눌러 주심으로써 조용히 개선할 수 있었던 일 또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학풍을 바로잡아가려 했습니다만 부족한 이 學弟는 한계를 느끼던 차 타교에서의 부름을 받고 미련 없이 떠나던 심정, 오늘에 아무 소용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先輩님의 영전에서 서자 홀로 중얼거리봅니다.

그러나 이 學弟 개인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김으로써 인생(人生)의 더 많은 자양분을 얻어 흡수하게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교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제가 못 다한 일을 능률하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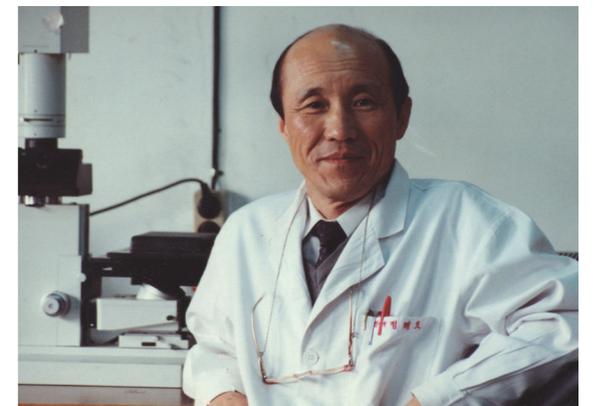
선배님! 한편으로는 시대를 잘못 만나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군의관 장기복무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들려주시던 일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한 투버신 tubertin 개발과 WHO의 한국 B형 간염센터 지정, 그리고 면역학교실 개설 등 선배님의 학문적 업적은 모교의 역사와 함께 후학들의 영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先輩님! 先輩님은 이미 이 미약한 학제의 심적 지주(支柱)가 되어주신 훌륭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유명(幽冥)을 달리하시니 모교에 가면 언제나 상봉할 수 있다는 희망이 끊어져 엄습해오는 고독감(孤獨感)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모교의 역사왜곡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교직자들이 있다는 서글픔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구석구석에 처박힌 자료를 찾아 뜻 있는 교직자들에게 알려드렸기에 늦었지만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의 인연(因緣)은 계속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추구(追究)하던 의학이라는 바탕에 매인 반연(絆緣)의 고리로 후세(後世)들까지도 함께하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따님 정혜리 양은 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에서, 서군 채성철 군은 모교의 내과에서 각각 훌륭한 교수로 이름 나있고 또 김정철 교수, 김문규 교수 같은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신 先輩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 學弟의 자식 형제 비록 선배님 덕에 비할 수 없습니다만 이 弟가 못다한 일을 이어 할 수 있다는 感으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全知全能한 모든 天地神明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모교와 동창의 발전에 대한 無極의 사랑을 기원합니다. 부디 永生極樂의 光明을 온 누리에 비쳐 어둠에서 허덕이는 衆生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뜻 갖든 울창주 한 잔 올리니 음미하옵소서! 尙饗



2014년 12월 13일 學弟
경북대의대 명예교수,
(사)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김두희 재배

대구의 큰 별이 떨어지다. 인산 박희명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인산 박희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 2015년 2월 22일, 자택인 대구시 중구 청운맨션 3동 802호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인산 선생님이 93세까지 비교적 오래 사셨으나 막상 별세 소식을 들으니 집의 한쪽 기둥이 무너지는듯 허탈감을 느낍니다. 좀 더 자주 선생님을 방문하여서 선생님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산 선생님은 1988년에 정년퇴임을 하셨으니 젊은 의사들에게는 잊혀져 갔습니다만 장년기의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뚜렷이 각인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의 족적을 따라갑시다. 194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대구의전을 졸업하시고 1946년 대구의과대학(나중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개명됨) 내과 부의무관이란 직함으로 학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심장병학을 연구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인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에 돌아올 때, 한국에서 심도자술을 시행하기 위해 당시 미화 200\$짜리 Scholander 미량 가스 분석기 등 필요한 의학기구를 손에 들고, 기선으로 2주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195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우심도자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학내 협력자로는 생리학교실에 계신 고 김대수 교수(현재 김현철내과원장의 부친), 외과학교실에서는 고 이성행 교수 등이 계셔서 이러한 대사를 이루기 위해 같이 협동작전을 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미국에서 심도자술을 배운 병원은 우심도자술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Courmand 교수와 Richards 교수가 근무한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귀국 후 처음 여러 환자에게 심도자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당시 1950년 및 1960년대 한국 경제 사정으로는 비싼 심도자술을 인체에서 계속 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체에서의 시술을 접고 심도자술을 개를 이용한 동물의 심폐연구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리학적 실험을 시행하고 또한 그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대한내과학회에서 '심부전증에서의 폐기능에 관한 연구'를 숙제 보고하셨고, 같은 해 경북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대한순환기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한국에서 가장 능력있고 최신 지식을 구사하는 심장전공 의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인산 선생님과 같이 내과에 근무하시던 선생님으로는 고 오상진 교수(대구파티마병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심장내과 오병희 교수의 부친), 그리고 고 김만재 교수(호흡기내과를 전공하시다가, 나중에 김만재내과로 개원하심) 등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과대학에서 인산 선생님께서 ECG 강의를 들으면 그의 명강의에 모두들 탄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산 선생님은 대한순환기학회 회장(1974년, 1979년), 대한내과학회장(197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1973년), 경북대학교병원장(1967년) 등 학내외의 중요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또 다른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아세아 태평양지역심장병학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훌륭한 동창에게 수여하는 제1회 학술부문 안행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현우 교수(호흡기내과 전공, 전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원장), 이상계 교수(순환기내과 전공, 현재 안심내과원장), 운영길 교수(내분비내과 전공, 현재 운영길내과 원장) 등이 내과학교실에 합류하여 인산 선생님과 같이 교육,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한편 심장학계에서는 의학의 발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심전도학에 이어서 심도자술의 시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심장초음파도학, 수축기 시간 간격계측 및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연구 등이 계속 발달했습니다. 경북대 순환기내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연구를 하여 많은 연구실적을 쌓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북대학교병원 내과에서도 분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는 고 정극수 교수, 정준모 교수, 최용환 교수가 활동하셨고, 혈액학 분야에서는 고 황기석 교수와 이규보 교수가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분화상태의 내과분과화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여 각 분과가 골고루 발달하도록 애쓰셨습니다. 내분비내과에는 운영길 교수(현 운영길내과 원장)와 김보완 교수(현 김보완내과 원장), 신장내과에는 고 이시래 교수(나중에 부산에서 개원하심)와 조동규 교수(현 조동규내과 원장), 호흡기내과에는 이장백 교수와 정태훈 교수, 알레르기 및 감염내과에는 김능수 교수와 김항재 교수, 순환기내과에는 박의현(필자), 전재은 교수 및 채성철 교수를 배치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인산 교수님의 실험 및 논문 training(교육이라는 말보다 training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을 철저히 받아서, 그들이 그 분야의 교수생활을 계속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산 선생님이 교직에 계신 30여 년 동안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극히 커서 제자들의 필체 또는 말하는 태도까지 인산 선생님을 닮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산 선생님은 말로써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라고 교육시키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몸소 보였기 때문에 미국 또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 제자 교수가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인산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셔서 거액의 기금을 대한심장학회와 경북의대 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후배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부님을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부님을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함을 슬퍼합니다!! 우리들은 인산 선생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훌륭한 삶을 닮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 3월 제자 박의현(박의현구심내과 원장)

35회 북유럽 여행

글 _ 최임석(35회) 동문

2014년 7월 22일, 거의 일년 동안 준비했던 졸업 47주년 기념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다. 시카고공항에서 힘차게 집결한 동기는 김성원과 배윤자 부부, 김광준과 김경희 부부, 김영길과 유영선 부부, 육정자와 신철야 부부, 이상욱과 서영희 부부, 정태수와 임정화 부부, 최임석과 주선심 부부, 최성정(34회)과 이영희 부부이고, 하루 전날 출발한 정의일과 하수영 부부, 뉴욕공항에서 출발하는 김승조와 이병영 부부 모두 20명이 9시간의 비행시간 끝에, 한국에서 7월 22일 출발했지만 시차관계로 22일 핀란드 헬싱키에 하루 먼저 도착해서 1박하면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문행자와 윤충 부부, 김무현과 유순복 부부, 박영남과 우정애 부부, 도종웅과 박금림 부부, 이원순과 백복주 부부 10명을 호텔에서 만나, 악수 포옹을 빼놓지 않은 반가운 인사를 하고 23일 첫날 헬싱키 관광을 시작했다.

세수도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적이 뜸한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구경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은 것은 대성당이 있는 세나테광장, 3,100개의 파이프를 지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암석바위 속에 지어진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1952년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픽 스타디움,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는 시벨리우스 공원이다. 오후에는 첫 수도였던 투르크로 이동하여, 유람선에 승선, 다음 날 아침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선상 음식은 뷔페식으로 먹을 만했고, 밤 중에는 파도로 배가 기우뚱하기도 했다.

2만 5천개의 호수로 둘러싸인 스톡홀름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도시다. 1625년에 건조되어 처녀 항해 시 돌풍으로 침몰된 전함 바사호를 333년 후에 건져내 전시하고 있는 바사박물관이 불만했는데, 침몰 원인에 여러 설이 있으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원인에 설득력이 있

는 것 같다.

노벨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 수상식이 거행되는 스톡홀름 시 청사 관람은 뜻깊은 감화를 자아내게 했다. 영화로도 보았고, 해마다 거행되는 시상식을 TV로 보면서 제법 익숙한 건물이 아닌가. 1,900만 개의 금박모자이크로 장식된 황금의 방은 노벨상 수상파티 무도회장으로 사용된다.

다시 우리는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96,000개의 청정 호수로 이루어진 스웨덴의 아름다운 평야를 바라보면서 북쪽으로, 다음에는 서쪽으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향해 달렸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코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오슬로를 지나 바로 노르웨이 자연을 감상하는 여행코스를 택하지만, 우리 동기 30명은 오슬로에서 1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관광할 곳은 별로 없고, 유람선을 타고 피요르드 관광을 했는데, 짧은 여름이지만, 낮이 긴 그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변에 즐비하게 늘어진 방갈로 같은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낭만적인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점심을 먹고 일인당 50불을 지불했었는데 빅맥이 나왔고, 저녁값으로 100불을 내었는데 평범한 중국 음식이 나왔다. 기분이다 하면서 점심때 와인을 한 잔씩 마셨는데 800불이 나온 것을 보고서야, 노르웨이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깨달았던 서글펐던 추억이 있다. 노르웨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11만 불, 퇴직금 자산이 870억 불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5만 불, 그런데 물가는 5배 정도 더 비싸다.



여행 3일째, 오늘부터는 산을 끼고 도는 긴 강과 호수를 따라 펼쳐지는 대자연의 웅장함을 감상하며 버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중간중간 휴식하는 코스다.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릴레함메르에서 스키점프대를 관광했는데, 착륙지점에 잔디가 깔려있어,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녁에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장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는데, 옆에는 폭포가 있고 만년설의 계곡 저 멀리 펼쳐지는 피요르드를 바라보는 경경, 인간의 언어로 표현키 어려운 빼어난 절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경치에다 밤 10시인데도 아직도 대낮같이 밝은 바깥에서 동기들이 둘러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며 담소하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까?

여행 4일째, 버스여행은 계속되고 또 유람선에 탑승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오늘 저녁 호텔은 흙으로 덮인 한 개의 큰 지붕 밑에 방이 6개가 원형으로 들어선 우리 동기가 명명한 공동묘지 호텔이었다. 이 호텔에서 자는 것이 겁나서인지 또 밖에 모여, 밤인데도 밤이 아닌 대낮 같은 밤에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며 맥주파티를 열었다. 맥주 한 병에 5불.

여행 5일째, 산악 로맨틱 관광열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라르달 터널을 통과한 후 스탈함임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버스 안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를 찬양하며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으로 향했다. 물론 버스 안에서는 그동안 짬짬이 박식하고 유머러스 한 Y담으로 우리를 웃겨온 한국에서 온 이원순과 도종웅의 Y담이 계속되었고, 졸업 후 47년 동안 경험했던 각자의 인생 경험담을 서로 나누고 듣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노르웨이 첫 수도이며 둘째로 큰 도시, 베르겐에 도착하니 장대같은 폭우가 우리들의 발을 잡았다. 그런 외중에도 어시장에 들어서 맛이 있다는 새우를 가이드의 꼬임에 빠져 샀는데 처리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버스에 탄 채 시내를 둘러보고, 오슬로로 가는 중간에 있는 아이로에서 호텔에 투숙했다.

여행 6일째, 오슬로로 다시 돌아와서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프로그네르 조각공원을 관람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시청을 방문했지만 마침 그날 관광이 허용되지 않아 시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바이킹 박물관, 국회의사당, 카를 요한 거리를 관광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는 유람선에 승선해서 뷔페식 저녁을 먹고, 쇼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 7일째, 행복만족지수 세계 1위 코펜하겐에 아침에 도착해서 시내 관광을 시작했다. 유서깊은 궁정, 덴마크 정부 건물로 국회의사당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크리스티안보그 성, 왕실의 공식 거처로 근위병이 보초를 서는 아멜리엔보그 성, 안데르센의 동화 주인공 인어공주 동상을 관람했다. 오후에는 중세 종교개혁의 유산과 개혁의 의지를 물려받은 그룬트비하 교회를 방문해서 합창을 했다. 덴마크는 복구의 작은 나라지만, 방금 우리들이 방문했던 다른 북유럽 국가처럼 EU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률이 가장 낮고,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내각 수상도 경호원 없이 자전거 타고 시장보러 간다고 하니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짐작이 간다.

이제 북유럽관광은 끝나고 호텔에 투숙하면 내일 집으로 간다. 마지막 밤, 호텔 정원에 모두들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웬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복장을 한 중동사람이 우리를 합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모두 어리둥절해서 자세히 바라보니 한국에서 온 도종웅이 아닌가. 큰 키에 김으로 수염을 만들어 붙이고, 흰 두건에, 검은 머리띠를 두른 모습이 오리지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였다. 맥주 한 병에 5불이라도 술을 사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호텔에 있는 맥주를 우리들이 거의 소비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여행 8일째, 코펜하겐공항에서 한국팀은 헬싱키를 거쳐 한국으로, 미국 팀은 런던을 거쳐 돌아왔다.

Letter : Saluting two inspirational lives

글 _ 김찬수(31회) 동문

What a heart-warming and uplifting story we have in this bitter-cold, dreary winter. I am referring to the recent passing of Jim Solenberger, who was born with the disability of cerebral palsy yet lived his entire life fully and energetically until he breathed his last.

With the deck stacked against him, Jim could earn himself a master's degree in library science and worked 34 years with the Illinois State Library. Literally, he translated disability into ability.

Cerebral palsy is caused by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at birth and its leading cause is prematurity(40-50 percent). It has several different types — the most common being spastic, athetoid/chorea, ataxic, rigidity and mixed types.

Based on my clinical experiences with cerebral palsy patients, athetoid seems to be least affected, or spared mentally, though it may look like a severe case just because of marked dysarthria(inarticulate and mushy speech) and constant worm-like and purposeless movements of the body.

Just like Jim Solenberger, my professional colleague, Dr. Tom Strax, was born with the athetoid CP. He had received his M.D. degree from New York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he happens to be a classmate of our prominent local physician Dr. Steve Stone.

Being a physiatrist, Tom finally became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a few years ago. In the words of Howard A. Rusk, M.D., my mentor, "Rehabilitation adds years to life and life to years." He went on to say, "Rehab should be everybody's business."

Both Jim and Tom are shining stars of rehabilitation. I salute Jim Solenberger for his victorious and selfless life.

Chansoo Kim

스미소니언 자연역사박물관에 장재옥 여사의 요리책이 전시되다

*스미소니언 자연 역사박물관 Smithsonian Natural History Museum

북미주 동창회 권석찬(34회) 동문의 사모님이신 장재옥 여사의 저서 '우리요리아 이야기'가 168년의 역사를 가진 스미소니언 자연역사박물관의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 코너가 생기면서 많은 요리책 중에 유일하게 장재옥 여사의 책이 선정되어 전시되었다는 축하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스미소니언 역사관 전시를 위하여 「우리요리아 이야기」 1,2,3권 300세트를 출품하게 되었다.

40년간 요리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요리아 이야기」는 재미대장금이라 불리는 요리연구가 장재옥 여사가 펴낸 책으로, 장 여사는 미국에서 40년간 한국음식을 알린 '한국음식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1970년 권석찬 동문과 함께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정착한 장 여사는 미국 12주를 다니며 한국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한인동포들과 미국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장재옥 여사는 시카고 한국방송 요리강습과 뉴욕라디오 서울방송 요리강습, 시카고TV 요리강습을 해왔으며, 코리아 모니터 주간지에 연재 중이기도 하다.

워싱턴 지역 국립도서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요리강습을 펼쳐 한식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미국홍보대사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주미 MBC방송을 통하여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려 미 주류사회에 한국문화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장재옥 여사는 주미대사관 동영상 요리출연, 대사관 문화원 요리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미소니언 자연역사박물관 한국 코너에 장재옥 여사의 40년 요리연구가 담긴 「우리요리아 이야기」가 전시되면서 2015년 1월 10일에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문화원이 협찬한 요리 시연회를 Secular Gallery Dining Hall에서 후원자들, Museum Director와 Curator들을 대상으로 열어 다시 한 번 한식을 알리는데 동참했다.



발전기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회수	성명	납부 현황
38회	김규태	5,000,000
39회	서인수	10,000,000
40회	김희숙	150,000
41회	안성열	15,000,000
43회	김보완	10,000,000
43회	지용철	100,000,000
45회	김도원	10,000,000
45회	채종민	4,000,000
47회	조희중	1,000,000
48회	박일형	150,000
49회	최영철	5,000,000
50회	김호각	1,000,000
50회	박귀동	15,000,000
50회	이재태	5,100,000
51회	현명철	100,000
52회	김인산	5,000,000
52회	장원표	20,000,000
52회	조병채	15,000,000
53회	김시오	250,000
53회	손수준	30,920,000
53회	홍경순	5,000,000
54회	경희수	600,000
54회	권영오	10,000,000
54회	김수동	5,000,000
54회	김형표	100,000,000
54회	최진교	12,368,000
54회	황정한	100,000,000
57회	탁원영	1,000,000
58회	안병철	6,000,000
58회	이상한	9,200,000
60회	김상걸	2,000,000
61회	민복기	10,000,000
61회	전영훈	200,000
63회	김건엽	3,000,000
64회	김여향	100,000
64회	전성우	100,000
69회	박신울	50,000
76회	정희연	300,000
77회	류현욱	500,000

장학금 1인1계좌 명단 (2015년 4월 22일 기준)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16회 홍선희	박근수 박재호 성창섭	이진관	최명부	38회 김규태 김태곤
17회 최경달	이재복 이재양 이철상	30회 강창수 권득기 권용주	34회 강행복 김수길 김충남	이승호 이원기 정영복
18회 이강수 이성구 전기영 조운해	정승환 정창근 조한제 최수년 황한호	김규호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최호섭	최성협
19회 김익동 배수동	28회 곽동수 구중수 김선홍(2) 김재식 김형규(2) 김희교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35회 김대조 김무현 김영희 김용언 김장환	39회 강덕식 곽정식(5) 문정웅 박노삼 박순천
20회 정우	김선홍(2) 김재식 김형규(2) 김희교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김장환 도종웅 박동술 박영남	박진현 전익식 조남근
23회 김희철 오학술	노수열 염우권 윤영길 이재창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40회 곽재영 김성호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김재승 김정균(20) 김홍조
24회 정균용 함덕상	정용국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25회 이정호 장경식	29회 김두희 김홍웅 박병덕 박영춘 박진상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장충광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장길동 전석길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26회 곽각순 김재수 박노택(5) 이우홍(2) 황일우	정용국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27회 김경수	김두희 김홍웅 박병덕 박영춘 박진상 백영수 송화복 예민해 유병철 이강목 이건화 이경수 이승도 이중수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31회 백봉수(2) 안재두 이상원 이채현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37회 권광우 김종률 박기호 박노선 박동성 백인기(3) 신홍식 안영규 전수한 최용환 하청길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장길동 전석길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32회 신현국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33회 김형우 이석강 이학용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41회	최원석	김법완	황성규	박준호	천중율	김병화	홍영애	이종오	박세영	
강임주	추연만	김재도		박창용		김신윤	황영목	이택후(2)	박세협	
김경년	현성택	김지홍	46회	서경진	50회	김인영		장원표(2)	박창순	
김곤홍		박광우	고병구	손계학	강동기	김장락	52회	장해운(2)	배재용	
김성학	43회	배형일	김석찬	손해경	곽정호	김재왕	곽동협(5)	전상중(3)	변정환	
김시열	권중수	백상현	김세웅	신명숙	길영태	김태준	곽시영	전상훈	서경란	
박경동	김기주	백운이	김인택	안문영	김규상	박만규	곽철승	전시열	서중환	
박근목(5)	김대석	심일청	김중구	이경열	김금주	박봉기	구본신(3)	정경희	서창수	
박일수	김보완	오천석	박태정(3)	이규원	김삼열	박성민	권경훈(5)	정명희	손경호	
배재기	김정도	이경화	성주경	이내호	김상유	방중경	권순환(2)	정용식	손수준	
배효근	박노문	이석균	오세진	이동진	김재연	서순애	기세길(5)	정종철(2)	손윤희	
백명규	박동철	이웅렬	이인걸(14)	이동헌	김재황	성후식	김경식(3)	조병채	손진호	
백옥지	박재식	이윤상	이재백	이숙희	김정철	손희철	김기홍	조완석(2)	송경은	
변인수	박재우	이정권	이재석	이왕복	김종윤	송광익	김동억	최병흔	송정흠	
안성열(10)	방용준	이정규	이창	이윤순	김종흥	양상호	김상근	최상호(5)	신창재	
윤영국	방인화	임탕식	정준현	조영섭	박문흠	양원병	김순덕	최일석(3)	신현석	
이상도	백태원	전명숙		최성만	서억수	오동원	김승일	최정규	안종걸	
이상훈(2)	안대덕	조영래	47회	탁기식(2)	서정욱	유경재	김영조(2)	추진신(2)	여성우	
이재우	우성구(2)	함인석	강상대	하정상	안기영	윤여득	김인산	하정희	오두중	
장한기	윤덕구	홍승근	김용신	홍순도	유빈서	이경민	김재홍	함소희(3)	오연희	
최광식	이광숙		김장희		이동길	이경수	김종일	홍성권	윤상열	
최덕현	이광윤(3)	45회	김종호	49회	이유철(5)	이경영	김종호(2)	황윤진	윤창섭	
홍정길	이진식	고봉환	남복동(5)	강명수	이의효	이기만	김현수(3)		이경옥	
황규홍	장병준	김광우	신순희(2)	권세일	이재태	이명우	나건연(2)	53회	이대원	
	장사상(6)	김도원	유영구	김중서	정병욱	이성희	남문진(2)	강헌구	이명구	
42회	장운하	김성화	이재준	김진우	조현숙	이우녕	남혜주	강희천	이민석	
김용탁	전상식	김중훈	이준희	김혜영	최영택	이원석	도은식(5)	권영식	이민재	
김의홍	전진곤	김행미	전민	김호준(6)	추동호	이재구	민병국	권종실	이상구	
김중식	정화선	김홍태(2)	정만홍	박원대	함희원	이현수	박동보	김학조	이정기	
김철규	조동규	남상재	정영환(2)	박장환	황용순	임영미	박승준	김경률	이창영	
김철수(2)	조병권	배선익	정지윤	배홍갑		임청호	박우용	김규태	이태규	
문덕균	조성경(2)	백철운	최광호	서장수		장기호	박일순(3)	김동찬	이형욱	
변영우(10)	조영철	신현주		손석수	51회	장대성	박재용	김명성	정순택	
서석주	조원현	안도환	48회	손찬락	강성희	장병원	박재율(3)	김세연	정호영	
송재권	지용철(10)	유성호	권영철	송국현	강인구(3)	정수영	박창근(2)	김숙영	조현열	
은종대	최수한	유안식	김복연	신제균	고삼규	정용표	배성일(2)	김시오	차호(2)	
이광열	최시호	이기호(2)	김원섭(3)	안욱	권오중	정철희	손구현(5)	김영호	최성관	
이규인(2)	하인선	이병수	김인호	오수희	권일훈	조총래	이기훈(2)	김원태	한승범	
이상호(5)	황보백	이원길	김일환	오영철	권태우	지성구	이상평	김재선	현향숙	
이정근		이종태	김지성	이관식	김광만	최성근	이상원(2)	김정란	홍경순	
임해수(5)	44회	이호성	김창윤	이봉우	김광석(2)	한금주	이장철(2)	김종원	홍기영	
정무달	강신수	정만진	김항재(10)	이정국	김대연	한상철	이재동	나병천	홍주희	
정제명(2)	김경선	하종섭	류수현	임재양	김동석	허달영(2)	이정안	류형우	황준하	
최병연	김광훈	허정욱	문병천	정상윤	김무원	홍성태	이중명	박민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54회	이영석	장재권(3)	박준구	정병룡
강대욱	이은영	장필식	박태인(2)	한영철
경희수	이재흠	전일훈	박형근(2)	황정현
권영수(2)	장금미	정세주	서선교	
권영오	장인석	정태호(2)	서중수	59회
김동철(2)	장현정	최규석	성이경	강원순
김병근(2)	정동일	최병호	송준화	강준형
김수동	정두선	최율제	우언조	권성우
김시열	정상득	한수일	이덕희	김경환
김영진	정일경	현명섭(5)	이병현	김대현
김영환	정창수	황형식	이승걸	김삼식
김인겸(5)	정홍우(2)		이양일	김성우
김재홍	지용대	56회	이종민(5)	김정균
김준욱	채영수	강창성	정춘식	김정민
김태형	천중욱	권태균	주성진	김종근
김형표	최동호	권태환	천임순	김철현
남윤성	최진교	금동윤	최도희(3)	김하균
도용희	최창혁	김병철	최성곤	김학수
류춘욱	하승우	김익수	허현준	노동우
마도훈	허용진	김인환		류영호
박남운	홍성범	김정국	58회	문상웅
박순우	황보근	김정수	구기영	박미영
박순원		김창희	권오수	박용진
박정배	55회	남창우	김문규	백승희
백효중	구본섭	도환	김성기(5)	백인화
서강석	권영무	박완섭	김준홍	서인경
성기영	금종명(10)	박재현	김탁관	서중산
성승모	김문수	이국형	류상건	서혁준
손병우	김병용	이양수	박서정	손성대
손효돈	김상훈	이운기	박용주	안형수
신영철	김승업	이종곤	박정석	유선오
심영보	김정수	임동건	박창열	유진태
양완석	김창호	천근수	배성곤	이강경
여민희	김태상		서영익	이강룡
오승열(3)	문성두	57회	서울주	이기준
오탈윤	성영호	김동희	서효숙	이명신
유병애	오형호	김문규	신현수	이미정
유영수	윤광명	김성중(2)	안승훈	이상미
윤경철	이석중	김수영	윤상흠	이원호
윤정수	이성락	김영애	이대원	이장규
이경호	이재혁	김용태	이상한(10)	이춘대
이상민	이정형	박병준	이성원	장지훈
이승재	이종훈	박성식	이주형(2)	전은주
이영미(2)	이충형	박성진	이현춘	전홍배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조영미	송광수	64회	김진덕	조민정
차승익	윤중수	권동수	박지현	
최현곤	이영실	김태엽	백승훈	70회
	이종우	민우기	변승득	김유경
60회	이준화	박신희	손준혁	신영아
강천일	전영훈	박성현	송선희	최희정
권대구	정진용	박재홍	심진영	
김경주	제석준(2)	반정민	유충목	73회
김기연	하영애	서문정	윤득현	서창우
김보미	홍순만	신경순	윤창호	
김소희		신무철	이동수	74회
김정구	62회	심삼도	이상철	권문혁
김정근	곽선영(5)	여원욱	이진우	김수정
김정연	권성희(2)	이규엽	이현정	김호찬
김진수	남근하(5)	이덕현	장재호	박가영
김태권(3)	박성빈	이명권	정보영	서관용
김항진	박진형	이정호(2)	정영원(20)	서안나
문덕복	손희강	이호원	조민현	서원우
박찬정	안원일	전성우	조영호	신미선
서현주	이건희	제갈양진	최윤석	신수정
손봉준	이응창	천재민	하경아	윤지원
신동필	정태균			임재광
신상훈	조병욱	65회		조윤정
신재필		곽경화	67회	조인지
이경림	63회	김상기	문성수	지성근
이광자	곽경필	김주경	문준호	최연경
이숙희	구지영	김찬중	송승훈	최재혁
이응배	권소정	류정임	이승훈	현효진
이태현	김건엽	박대홍	이용직	홍영기
정기재	김은경	이동규	이정은	
정동휘	김종열	이상민	전보영	정운선
정보우	김찬덕	이선호	정운선	조지형
정재호	나승찬	이은호		68회
조유숙	노현주	정원욱	68회	남순영
한정훈	손재희	정진항	정진항	성우진
	유은상	조준형	조준형	이원채
61회	윤영목	조희준		정병진
강현욱	윤정보		66회	하성조
김광훈	이정미	66회	강봉구	
김수지	이창현	강봉구	금윤섭	
김준홍	장우호	김상욱	김세영	
민복기	조재현	김세영	김영은	
박우상				
변재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정원	이명숙	이승우		
이현정	이유진	장병주		
홍재문	이혜림	장영수		
	최연주	장준혁		
78회	탁지영	하대룡		
권영기	황중문			
김도훈		타교		
김병철	82회	김갑철		
김보연	김상원			
김아람	김재경			
김창연	김재성			
김현미	김제연			
나주용	김현			
박정규	나동희			
박준	박지은			
오홍근	박현진			
전호중	서영진			
정윤영	은효정			
진영주	이주갑			
최주열	이지선			
최진혁	이효재			
	이효정			
79회	임춘근			
권오영	정나리			
김도형	지찬희			
김명수	추윤주			
박경민	홍원기			
박아영				
송승호	83회			
윤기영	권은옥			
최우곤	김석민			
황승현	김성은			
	김영은			
80회	김의환			
권정은	김중환			
김세훈	김진			
김세희	김현정			
김정심	남은정			
김홍년	노희윤			
박정화	박병건			
박찬호	박준홍			
유병혁	오현민			
윤덕근	윤지욱			
윤현수	이광민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전1회		박언서	10	안형채	20	이한기	30	정환국	110
권상규	20	배치도	10	오성근	20	차승만	10	주영은	10
최익수	10	서정해	20	원병식	100	허탁	20	지종민	10
		최삭덕	20	윤병문	14			채의업	10
전3회		이대부	20	16회		최경달	83		
김명한	10	8회		고태영	20				
		박노옥	20	곽영수	120	18회			
1회		오복수	20	김만재	640	김경배	10		
배강훈	10	전도기	10	김익영	20	김방영	100		
송명도	1,720	허동섭	100	김집	420	김세진	10		
				김판조	20	김영곤	30		
2회		9회		석영관	120	김윤준	320		
신학진	500	권오기	10	송재식	100	김중명	210		
이종구	20	권오성	120	신동수	120	김진욱	120		
		김정만	20	양구열	20	김찬규	25		
3회		남영소	100	이강백	200	김천수	20		
배상우	20	박윤갑	10	정재홍	110	김형수	20		
이규원	20	박정득	20	홍선희	393	문시갑	520		
임종철	100	석종수	20	홍순욱	120	민병훈	30		
정덕용	50	안지열	20	황기석	210	박동수	20		
		육돈상	100	14회		박재식	560		
4회		이성관	200	강호균	20	박종길	20		
김경훈	120			김명호	230	박종근	100		
		10회		김영적	120	손해룡	30		
5회		김규성	10	김영진	20	남태현	220		
김회규	10	김승태	20	서철성	120	박진우	120		
이영진	10	김종일	20	이기창	10	배기환	20		
이주걸	400	김태수	20	최철권	20	배동직	120		
최효중	20	이동식	320			백의태	220		
허균	20	최근유	100	15회		서주익	20		
		홍기운	120	곽수돈	20	서창석	20		
6회				김성화	41	소인영	20		
김기출	30	11회		김용복	20	안두홍	510		
박하윤	20	김위상	120	김인현	10	오삼달	20		
배중호	20	김한수	100	김철희	20	오상진	120		
정환탁	100	신대식	20	김환룡	10	우원형	10		
		이원기	120	남택승	10	이기영	300		
7회				박두복	10	이동경	20		
김만달	4,510	12회		백병택	20	이삼영	120		
남궁균	20	박우순	10	송조영	120	이상성	320		
				이종탁	20	정재규	11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필우	100	빈남수	130	김종태	10	문세광	110	26회	
전기영	217	오창열	4,018	김희철	277	민병택	10	강두경	10
정동춘	20	이기영	20	오학근	451	박양규	20	강성규	320
조운해	14,688	이해관	30	오학술	119	박영관	10	곽각순	96
황남철	30	정병화	25	이상준	320	박영해	10	김강오	20
황훈	20	정우	113	장익주	100	박정열	306	김근주	24
		최보영	20	최호섭	21	박준식	520	김동락	95
19회						박찬우	20	김병희	10
권재성	10	21회		24회		변기수	510	김상하	210
김성중	25	권용환	10	김경환	2,000	변동길	20	김영애	20
김성호	20	김동성	10	김한빈	20	서성탁	400	김원배	20
김영수	20	김성대	100	박무철	20	서영욱	10	김장훈	500
김윤자	10	김종덕	120	백성기	200	서재주	10	김재수	163
김익동	1,006	박성열	120	서상하	20	소병국	20	김종대	20
김한동	276	송창화	117	손태중	210	송길수	20	김종환	220
김형근	20	유태기	20	신장곤	100	신도관	20	김진원	100
류명하	82	이종일	10	양달선	10	신용달	100	김창호	100
박금자	11	장병국	145	이동영	150	안재원	20	김치익	20
박상성	25	정창용	20	이진희	20	안차완	20	김태환	20
박성대	10	차중석	200	이현식	20	예훈해	100	김희덕	10
박해수	10	최병욱	20	이흥기	20	오태환	20	박노택	1,640
박흥열	20			전택준	220	윤병오	11	박병기	20
배수동	41	22회		정균용	212	윤희웅	20	박상빈	20
서병도	10	강현식	10	조성래	142	이광호	20	박성규	100
서희수	20	곽외경	20	조준승	1,110	이달원	20	박영훈	11
손장락	20	곽중원	20	최동익	10	이선규	20	박홍진	20
양학도	12	김영권	20	한경식	20	이수동	320	백충기	2,020
오상건	25	김태순	10	함덕상	108	이원순	5	변재욱	20
유호열	330	박영훈	200			이정호	374	서동익	120
이광직	20	박충서	68	25회		이해영	20	서치균	100
이상한	20	서영태	20	강중신	120	장경식	86	성창수	20
이시춘	20	서원수	20	곽석순	20	정상진	20	손건	10
이종담	12	이동희	10	김경식	20	정일동	20	송경오	300
전동우	12	이열희	10	김광	20	정재훈	192	송준영	10
정기홍	20	이형수	20	김동한	20	조중환	10	신종열	20
정훈모	10	임학권	520	김병태	20	차상호	100	심재기	20
조현숙	100	정우섭	10	김상욱	10	최형근	201	엄영세	20
주용환	20	정희곤	223	김영배	12	하용마	150	윤건호	100
최지환	20	최현호	2,200	김완식	20	한덕기	20	윤주식	10
황우익	20			김용희	10	한석문	20	이성구	50
황흥주	10	23회		김원수	20	허만하	10	이우홍	362
		김경수	200	남용진	20	황규택	20	이원순	20
20회		김달수	20	노영하	10,120	황현규	120	이은화	20
김기협	10	김재하	100	도창기	20			이재운	2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표진	220	이민환	20	김재식	10,515	나진훈	210	30회	
임태규	130	이병재	190	김창배	100	남상하	20	강석현	60
정봉조	525	이상배	8	김형규	402	도시금	10	강창수	98
정승화	10	이승현	120	김희교	194	박무근	50	권득기	1,265
정원근	20	이영식	20	노수열	84	박병덕	185	권영진	70
정태호	345	이재범	20	문한규	20	박상곤	73	권용주	156
정희교	206	이재복	80	민종기	10	박성득	20	금동혁	20
조기환	25	이재양	213	박양화	60	박영춘	90	김규찬	70
조태호	510	이재인	100	박진홍	20	박지근	87	김규호	138
진정환	20	이중길	20	배종호	20	박진상	80	김도상	1,135
최성규	10	이철상	3,583	서재관	100	백부기	20	김병화	365
최홍두	10,190	이학규	20	염우권	193	백영수	119	김석구	111
홍근식	20	이현우	110	오병희	20	백종흠	100	김세현	215
황문수	20	장경식	20	유광수	20	서보상	20	김영기	96
황일우	419	전열경	20	윤영길	283	설수길	20	김영수	65
		정명국	20	이규원	20	송문원	1,000	김원훈	20
27회		정승환	185	이덕희	200	송화복	95	김익원	163
강신학	10	정창근	911	이상계	5,169	신수범	20	김정휘	70
강진무	10	조병호	20	이재규	100	예민해	175	김태목	50
곽판달	20	조장제	44	이재창	265	유병철	295	김판석	70
권성진	120	조한제	91	이한철	20	윤성직	100	노명호	50
김경수	217	최성근	150	이화동	11	이강목	220	류동근	20
김성진	20	최성욱	20	정용국	195	이건화	95	박수연	157
김찬우	110	최성천	50	정준택	20	이경수	213	박재석	70
박갑석	20	최수년	289	조근제	20	이근후	200	박한승	50
박근수	69	최우진	24	천덕녕	20	이보근	20	박희인	70
박우춘	20	최창록	10	최세영	20	이상석	20	배병원	165
박재호	80	최치교	200	한근섭	223	이성렬	20	배성호	20
배광원	20	하근수	102	홍진권	14	이승도	74	백정대	10
배효인	25	하재창	10	홍형식	30	이재춘	20	서정욱	10
서동룡	10	홍성달	23			이중수	115	서찬수	70
서정규	20	황한은	10	29회		이진관	260	석진길	20
성창섭	89	황한호	64	강상원	10	임중수	20	소원영	367
손두목	165			강석지	200	장원익	20	송석호	170
신채범	20	28회		강진성	10	장태수	310	송준철	70
예학성	220	고재우	100	강태생	20	정덕재	30	신은식	2,064
오준섭	10	곽동수	195	김광덕	20	정일현	1,100	안원호	105
유대우	200	구중수	193	김광식	20	정준모	410	안종호	3,350
유우호	20	권달만	100	김두희	297	정호문	20	오창석	465
윤수한	20	권세훈	20	김병권	310	조수호	20	윤석하	160
윤익진	220	김병일	220	김병만	10	한용섭	20	이두현	20
이교연	20	김봉기	10	김성배	20	허태득	30	이병철	120
이규원	938	김석구	30	김인홍	10			이병호	120
이만선	37	김선홍	126	김홍웅	78			이상원	155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상화	113	석재수	400	김희태	476	김이민	163	김중섭	120
이승욱	370	손승원	20	박노대	100	김이호	11	김충남	315
이시래	10	심달보	70	박승보	10	김정두	20	나우연	110
이영우	20	안재두	247	박정하	20	김종목	20	남위현	20
이용길	1,157	양성기	320	배정동	20	김형우	385	서무삼	10
이정창	60	엄정섭	200	서만수	100	박문재	120	서상하	120
이종길	155	오정대	20	서석권	10	박양서	10	손위익	120
이종택	357	유동림	23	신기준	5	박용기	10	오상유	220
이진영	51	유정식	100	신현국	147	박원길	10	오영성	20
이학수	167	유환무	20	신현수	20	박재훈	100	이두형	10
임상근	35	이동일	50	안영환	648	박진웅	613	이용준	40
전병석	224	이문규	20	오지섭	2	박청길	20	이용태	20
전재규	560	이병철	10	유안연	20	배억두	100	이장박	20
정태수	70	이봉조	100	유영선	10	배원길	100	이태열	10
정해돈	20	이상원	685	이규신	50	서정목	20	전상훈	114
조세환	445	이양우	120	이수영	10	송달호	100	정상봉	10
최익수	10	이용권	200	이종학	510	신태규	10	정영식	120
최종태	20	이재호	20	이주원	20	양의식	20	조수자	110
최창대	20	이재현	215	장세국	460	이규보	710	최용교	20
최형달	100	이희석	20	장수일	110	이동훈	120	최호섭	193
한홍달	20	정복수	20	전종수	20	이석강	161	편영식	10
		지성우	20	정기준	20	이죽내	310	하길풍	20
31회		최규태	5	정인호	20	이학용	78	한기창	10
곽달현	20	최동철	66	정일수	17	인주철	210		
구자훈	310	최영달	200	정재영	235	전명흡	20	35회	
권병배	260	최중두	200	정철용	20	전상연	20	고윤표	20
권병연	11	추병근	20	조대형	20	전재욱	20	김대조	92
김광태	20	황규성	32	조복래	20	정상립	710	김무현	115
김병호	20			조태환	310	정재룡	320	김부년	20
김봉석	163	32회		채병식	300	정종학	310	김상도	146
김승래	10	고철언	260	최동하	588	정한진	10	김성환	20
김영명	400	구문근	30	최원환	20	정해명	20	김영희	94
김영창	200	권영신	5	최종명	20	조상래	100	김용언	209
김종모	20	권영엽	10	한영기	20	최명부	106	김윤수	20
김준	150	김경남	140	황인원	20	황보상	20	김장환	97
남재만	20	김동진	20					김태홍	20
류동림	20	김동환	120	33회		34회		김현석	20
류성하	400	김성룡	20	강재도	10	강행복	283	김훈남	230
박경화	2	김승팔	10	권광보	220	고경환	88	도종웅	189
박승국	10	김정만	120	권오석	720	김규성	20	류창수	20
박시균	100	김창연	20	김상철	310	김세호	20	민병삼	120
백봉수	802	김태한	20	김수철	20	김수길	215	박동술	1,095
변달섭	20	김홍석	20	김용배	1,020	김원재	120	박삼균	20
서구덕	70	김홍태	100	김유사	10	김유문	110	박영남	135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변승렬	220	정영기	490	정성수	1,020	최두석	50	고재휴	49
서수지	10	정희자	30	조남제	20	최선길	20	곽재영	323
손영주	20	최영인	100	조수호	110	최성협	83	권오극	5
송남원	10	허진철	10	최용환	693	최영창	100	김선우	100
이두룡	87	황재욱	20	최준영	10			김성호	95
이성일	147			최현만	10	39회		김신근	5
이원순	1,184	37회		하청길	171	강덕식	2,365	김영규	10
이장백	220	강복수	115	황명주	40	곽정식	535	김옥동	204
이충일	100	권광우	289			곽평수	20	김완섭	396
장병희	20	권욱진	10	38회		김건희	20	김은우	30
장총광	97	김광수	20	곽옥철	60	김난희	600	김일경	292
정계호	20	김명한	10	권정윤	510	김능수	510	김재성	197
정기용	10	김신동	10	김관식	83	김인식	120	김종환	477
정정길	10	김연택	20	김규태	1,100	김희택	180	김주열	113
지창준	10	김정만	46	김민상	100	도분순	20	김징균	2,482
최서규	20	김종률	477	김송명	10	문영길	20	김홍조	97
최유근	100	남영근	20	김수	310	문정웅	1,273	김희숙	99
		남팔수	10	김유탕	100	박건정	2	남재우	20
36회		문원만	20	김은상	20	박노삼	197	도영구	297
강병조	120	문종웅	122	김춘택	20	박란규	100	도재욱	266
견일수	95	박기호	64	김태근	105	박순천	436	박병렬	158
권국현	120	박노선	265	김태준	20	박연목	220	박병철	1,220
김무룡	20	박동성	284	김풍택	716	박진현	104	박복음	20
노관식	10	박성대	10	김흥대	20	서영호	20	박순록	20
문시언	220	박영철	200	박동춘	110	서인수	1,210	박영호	217
박노춘	29	박익현	610	박무길	200	안종철	3	박종한	25
박도수	400	박홍진	10	박복환	10	우성구	60	박준식	10
박형규	113	백인기	295	박정한	100	우원호	20	배정인	10
백용현	517	성기태	200	서중우	100	이동민	10	서성룡	50
백철홍	20	신홍식	471	송달원	10	이종태	300	서정규	204
손건부	95	안영규	88	안성훈	10	전익식	63	서준수	20
손영우	10	안진상	10	윤성도	10	정용한	20	손승원	89
송풍호	10	오현수	56	이성동	48	정재명	100	유병욱	97
심청택	20	윤용삼	120	이승정	100	정정표	20	윤병철	97
염덕준	5	윤재호	200	이승호	83	정태훈	520	이동화	50
윤정직	10	이귀란	50	이원기	309	정해건	105	이성환	100
이동행	50	이동구	351	이일웅	35	조남근	273	이승기	199
이영하	510	이원기	38	이장환	50	조호철	520	이영현	120
이정범	1,370	이원락	120	이정수	100	조희웅	20	이학서	55
이창수	132	이현용	100	이충길	10	최동수	100	이호연	10
임종선	120	이홍일	2	장성익	10	허동은	133	장길동	97
장기용	10	전수한	1,102	전재복	10			장상식	204
장신형	120	정구용	20	정영복	68	40회		전석길	107
정수광	20	정문화	20	지선득	20	강달삼	20	전재은	748

경 북 의 대 동 창 회 기 금 현 황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채성철	800	손찬락	199	김상유	132	51회		오동원	101
천병렬	15	송국현	100	김수천	100	강성희	73	유경재	82
최봉태	20	송원영	40	김재연	479	강수찬	30	윤여득	111
최성만	94	송재영	100	김재황	59	강인구	169	이경민	154
최세영	10	송중원	2,510	김정철	563	강재원	39	이경수	131
탁기식	128	신세종	100	김종윤	80	고삼규	1,281	이경영	81
하정상	82	신재균	111	김종홍	88	권귀련	30	이기만	131
한승욱	30	안욱	171	김준식	10	권석룡	30	이명우	189
홍순도	112	오성태	100	김호각	100	권오중	81	이병태	30
		오수희	54	남필훈	30	권일훈	81	이상복	39
49회		오영철	195	박관규	10	권중혁	20	이성희	226
강구봉	100	이관식	599	박귀동	1,500	권태우	81	이우녕	81
강명수	161	이관호	210	박문흠	729	김경수	30	이원석	81
강순병	110	이광열	200	서노교	195	김광만	126	이원태	20
강철형	510	이병기	100	서억수	72	김광석	66	이재구	197
고철우	387	이봉우	188	서정욱	93	김대연	81	이헌수	131
권세일	385	이승철	600	석대식	100	김동석	701	이형중	100
김기산	500	이신하	100	손경락	30	김무원	131	임영미	1,213
김동규	50	이재경	200	손윤경	720	김병헌	73	임청호	81
김영환	100	이재성	100	안기영	268	김병화	161	장기호	62
김임자	300	이정국	88	우영훈	10	김신윤	737	장내원	100
김정식	501	이형일	20	유빈서	68	김인영	73	장대성	438
김중서	1,399	임재양	297	이동길	83	김장락	101	장병원	81
김주호	110	임효덕	130	이만기	725	김재왕	531	정경동	20
김진우	123	전덕하	100	이상락	100	김태준	111	정수영	81
김현준	143	정경재	100	이성운	30	김현구	30	정연웅	30
김혜영	164	정상윤	65	이유철	853	문현창	13	정웅표	81
김호준	859	조영수	600	이의효	95	박만규	81	정인권	300
김효석	130	조정현	400	이인규	510	박봉기	181	정철희	81
문신길	30	천만희	31	이재태	1,284	박상운	100	조총래	111
문충열	100	천종률	54	이정철	20	박성민	431	지성구	111
박기홍	100	천종율	37	이종근	200	박우상	7	최성근	81
박원대	169	최영철	600	정병욱	63	박유현	13	최연극	30
박장환	93	한창호	100	정병천	100	박은미	35	하용수	100
박정태	67	홍상현	105	정현대	100	박태준	30	한금주	66
박철희	10			조현숙	323	방종경	261	한상철	137
배경일	159	50회		지동하	43	백승남	19	허달영	454
배한익	515	강동기	79	최영택	68	서순애	96	현명철	260
배홍갑	195	곽정호	85	최재호	100	성차경	15	홍성태	81
서병헌	66	권영근	76	추동호	83	성후식	114	홍영애	123
서상일	140	길영태	380	함희원	88	손희철	111	황영목	66
서상철	33	김규상	61	황용순	85	송광익	123		
서장수	807	김금주	71			양상호	139	52회	
손석수	217	김삼열	124			양원병	172	강민구	174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강병직	2,000	배양규	6	53회		손진호	293	54회	
곽동협	645	백승찬	1,544	강헌구	94	송경은	688	강대욱	103
곽시영	69	백원진	320	강희천	58	송도원	30	강영모	240
곽철승	53	손구현	340	권순학	200	송정흠	57	경희수	1,103
구본신	207	송국평	500	권영식	63	신언성	74	권삼	55
권경훈	345	심원보	30	권중설	57	신창재	57	권영수	132
권순환	138	이경호	200	금학조	57	신현석	57	권영오	1,433
기세길	345	이기훈	138	김경률	57	안종걸	57	김건오	74
김경식	207	이무상	1,000	김규태	70	여성우	183	김덕영	40
김기홍	69	이상평	68	김도헌	100	오두중	85	김덕윤	40
김동익	188	이성원	138	김동욱	30	오연희	56	김동철	174
김봉재	4,000	이순화	27	김동찬	57	윤상열	56	김문연	40
김상근	88	이우기	25	김명성	57	윤창섭	61	김민수	30
김성록	15	이장철	138	김성국	50	이경옥	57	김병곤	132
김순덕	186	이재동	71	김세연	57	이구희	150	김수동	635
김승일	60	이정안	69	김숙영	69	이대원	93	김승호	40
김영두	130	이종명	693	김시오	560	이명구	57	김시균	40
김영조	138	이종오	86	김영호	88	이민석	223	김시열	86
김용선	50	이진식	100	김용림	500	이민재	95	김영진	101
김인산	1,413	이택후	662	김원태	67	이성구	83	김영환	235
김재홍	71	장원표	2,138	김재선	47	이재동	5	김원엽	40
김종일	69	장해운	238	김정란	57	이정기	157	김윤수	40
김중호	138	전상중	207	김정용	22	이종기	53	김은배	40
김준우	100	전상훈	73	김중삼	50	이창영	75	김익현	40
김철규	102	전시열	83	김중원	57	이철	32	김인겸	3,247
김현수	207	정경희	88	김희진	46	이태규	95	김재홍	124
김효경	130	정명희	69	나병천	99	이형욱	57	김준욱	137
나건연	338	정용식	183	류한업	15	장유석	15	김태형	86
남문진	138	정종철	136	류형우	156	정순택	737	김형표	20,573
남혜주	105	정태훈	345	박매자	100	정호영	325	김홍환	40
도은식	345	조병채	2,409	박민하	88	조현열	57	남윤성	136
마인열	21	조완석	138	박병규	150	조희태	1,200	도용희	135
민병국	1,069	최병훈	69	박세영	395	차호	128	류성렬	40
박동보	68	최상호	327	박세협	63	채석수	50	류성훈	40
박동우	1	최석용	1	박창순	57	최성관	57	류춘욱	86
박성파	400	최일석	307	배재용	63	한승범	41	마도훈	166
박승준	60	최정규	369	변정환	57	한창희	1,452	마성대	80
박신영	1	추진신	138	서경란	81	현향숙	56	박상운	940
박우용	69	하정희	619	서중환	426	홍경순	588	박순우	86
박일순	357	함소희	207	서창수	56	홍기영	57	박순원	135
박재용	593	허명구	100	손경호	76	홍주희	57	박정배	86
박재울	207	홍성권	69	손구현	5	황순구	13	박한배	40
박창근	238	황윤진	269	손수준	3,148	황준하	60	백효종	115
배성일	138	손윤호	87					서강석	114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서창식	40	정홍우	423	김신우	339	우대영	39	채민수	39
서희석	300	조근태	195	김은영	69	우병철	39	최경희	39
성기영	375	주대현	40	김인수	39	유국선	39	최귀애	39
성승모	185	주인수	40	김재우	39	유도환	39	최규석	182
성열오	73	지용대	109	김재철	39	유미경	39	최병호	328
손병우	135	채영수	264	김정수	127	유정우	39	최영근	39
손효돈	139	천종욱	217	김정호	69	윤광명	127	최을제	143
신영철	115	최경수	40	김종진	39	이남혁	39	최정현	39
심영보	127	최광진	74	김창호	99	이동석	39	최한철	39
안영호	40	최동원	100	김태상	127	이명기	39	한동길	39
양완석	192	최동호	458	김하식	539	이석종	432	한석	65
엄재화	40	최진교	1,423	김한복	39	이성락	93	한수일	121
여민희	112	최창혁	115	김홍달	39	이수형	69	한준열	39
오승열	207	편도철	100	김희경	39	이시동	39	하동명	39
오태윤	115	허승우	636	남대희	39	이영환	39	허주희	39
유병애	192	허용진	195	문성두	93	이원기	39	현명섭	397
유영수	119	홍성범	112	박기호	39	이윤근	39	홍성표	39
윤경철	337	황보근	136	박선후	39	이응천	39	홍승표	39
윤영팔	40	황정한	15,317	박성근	1,139	이재혁	112	황은경	39
윤정수	209			박승우	39	이정형	127	황종문	39
이경호	104	55회		박영명	44	이종흔	138	황중하	39
이동현	40	강경훈	39	박영호	39	이총형	127	황진복	39
이미경	40	강도원	5	박위태	20	이태우	39	황형식	120
이상민	336	강래균	39	박윤정	39	임시영	39	56회	
이상화	40	구본섭	100	박재기	39	임종섭	39	감신	200
이성원	10	권영무	56	박철호	69	장재권	260	강창성	97
이승재	86	권장구	139	박혜경	39	장제주	1	권태균	489
이영미	132	금종명	599	배도호	106	장필식	122	권태환	376
이영석	136	김건순	1,000	백호길	39	전일훈	270	금동윤	59
이은영	86	김광원	39	상영호	39	정대윤	39	김범주	45
이재흠	158	김귀란	39	서광휘	39	정복현	39	김병철	54
이현영	40	김대현	39	성영호	133	정세주	63	김수균	1,000
이효성	40	김동환	39	손상균	139	정승필	39	김영인	40
장귀련	40	김명규	39	손형규	39	정우식	39	김익수	147
장금미	46	김문수	122	송소현	39	정유근	39	김인환	54
장인석	128	김병진	69	신동건	39	정태호	167	김정국	143
장태원	40	김병용	158	신왕식	39	정학영	39	김정수	87
장현정	79	김상훈	331	신정애	39	정현주	339	김창희	93
정규식	60	김성엽	91	신준호	39	정후재	39	남창우	96
정동일	703	김성철	39	신춘근	59	조성재	39	노명호	36
정두선	135	김송	39	신현호	39	조영환	39	노선주	13
정상득	107	김숙희	139	양시강	39	조용근	139	도황	107
정일경	135	김승업	106	양정선	39	조지희	39	박완섭	107
정창수	118	김승태	39	오형호	127	조창호	39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박윤엽	5	우언조	63	신현수	62	서중산	89	김태석	174
박재현	63	이덕희	53	안병철	700	서혁준	181	김항빈	88
박정철	100	이병헌	393	안승훈	41	손성대	88	문덕복	60
박현식	300	이승걸	146	양은경	415	안형수	99	박재찬	100
성준제	1,000	이양일	46	오주현	15	예미경	27	박찬정	94
이국형	109	이양현	300	윤봉호	100	유선오	81	사공미	42
이양수	583	이종민	145	윤상흠	63	유진태	97	서현우	88
이운기	226	이준호	13	이대원	99	윤길숙	100	손봉준	88
이종곤	81	정병화	30	이상한	2,902	이강경	59	신동필	88
임동건	495	정춘식	88	이성원	47	이강룡	63	신상훈	61
전석구	100	조경제	100	이제철	100	이기준	81	신재필	93
정성훈	130	주성진	94	이주형	82	이명선	89	이경림	88
조경신	50	천임순	72	이현춘	52	이미정	89	이광자	88
천근수	63	최도희	23	정병룡	206	이상미	63	이숙희	47
홍원표	300	최성근	104	최정일	50	이영삼	30	이승배	144
황윤근	10	최형경	30	한영철	252	이원호	61	이태현	89
		추성욱	30	황정현	190	이장규	91	임시수	30
		탁원영	300	황정환	100	이춘대	89	정기재	88
		허현준	148			장지훈	81	정동휘	48
57회				59회		전은주	89	정보우	88
김동희	79			강원순	62	전홍배	61	정재호	88
김문규	349	58회		강준형	89	정기하	43	조성	15
김성중	132	구기영	96	공현희	400	정정은	30	조유숙	88
김성호	50	구태분	340	권성우	91	조영미	88	조창민	100
김수영	64	권오수	62	김경환	96	조재현	6	한정훈	88
김영애	163	금민수	50	김대현	47	조준용	100	홍은희	180
김용태	229	김문규	68	김삼식	81	지문종	39		
김은숙	100	김문호	230	김상현	10	차승익	192	61회	
김정열	350	김성기	735	김성우	61	최현근	94	강지원	78
김철진	100	김영대	130	김정균	47	한형수	300	강진영	26
동가진	30	김준홍	47	김정민	260			강현욱	83
박동원	200	김지화	100	김종근	81	60회		김광훈	88
박병준	147	김탁관	54	김철현	390	강천일	69	김기영	41
박성식	73	류상혁	72	김하균	54	권대구	88	김병준	34
박성진	33	박기수	30	김학수	72	김경주	85	김수지	61
박정철	100	박서정	63	노동우	89	김기연	88	김영탁	48
박준구	113	박영진	100	류영호	89	김보미	88	김준홍	83
박태인	405	박용주	54	문상웅	53	김상걸	300	김지현	159
박형근	150	박정석	99	박미영	63	김소희	73	민복기	1,005
배용철	10	박창열	93	박용진	89	김정구	96	박선영	20
서경미	20	배성근	60	백승희	89	김정근	88	박우상	26
서선교	36	서영익	93	백인화	90	김정연	88	박진영	18
서종수	126	서울주	88	변창렬	22	김진수	554	박현숙	21
성이경	129	서효숙	63	서인경	46	김태권	109	변재호	76
송준화	82								
염한규	100								

2014년도 장학기금 모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성명	기수	금액	납부일자
1	외환추심	북미주	2,313,516	1. 22
2	김하식	55회	2,000,000	1. 29
3	이규청	34회	5,000,000	3. 14
4	육순황	43회	1,000,000	4. 28
5	졸업 25주년 홈커밍	57회	50,000,000	5. 27
6	졸업 50주년 기념	32회	18,753,450	6. 3
7	정순택	53회	1,000,000	7. 21
8	송중원	49회	3,000,000	7. 30
9	이윤상	44회	30,000,000	9. 1
10	김건순	55회	10,000,000	9. 17
11	허 석	47회	1,000,000	9. 19
12	금민수	58회	500,000	10. 1
13	윤경철	54회	1,000,000	10. 27
14	김영적	14회	1,000,000	10. 28
15	성준제	56회	10,000,000	11. 3
16	정순택	53회	1,000,000	11. 18
17	외환추심	북미주	72,423,380	11. 18
18	손재경	46회	5,000,000	11. 25
19	김인주	47회	5,000,000	11. 25
20	고삼규	51회	5,000,000	12. 3
21	김태권	60회	1,000,000	12. 10
22	김동석	51회	1,000,000	12. 30
23	김진수	60회	1,000,000	12. 31
합계			227,990,346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17회		여병택	\$500	31회		김광환	\$500	이용웅	\$11,500
김태훈	\$800	여웅연.강반(31회)	\$101,600+4,200,000	강반.여웅연(28회)	\$101,600+4,200,000	김성용	\$500	임청	\$500
18회		이상국	\$500	김경수	\$1,300	김정환	\$1,100	장문찬	\$200
유춘식	\$300	이해성	\$100	김재찬	\$4,500	박재무	\$1,000	장성길	\$200
윤주덕	\$400	임병우	\$100,400	김재철	\$300	박희도	\$500	전무영	\$100
지성해	\$20,300+1,000,000	최중식	\$400+3,000,000	김정식	\$500	서태준	\$6,000	최대식	\$400
허규숙	\$500	29회		김찬수	\$1,200	송중규	\$1,100	탁원균	\$400
19회		고우련	\$100	김창환	\$200	안영환	\$1,000	홍래복	\$400
서욱	\$500	곽연식	\$100	김태수	\$100	오상완	\$1,700	34회	
22회		곽현주	\$100	김학진	\$100	이성수	\$800	고충환	\$10,300
김연호	\$20,390+2,000,000	김수생	\$400	노인환	\$1,500	이승영	\$1,000	권기호	\$1,100+2,000,000
김몽환	\$100	김진길	\$100	박노종	\$1,400	이영남	\$500	권석찬	\$400
25회		김진대	\$500	배익학	\$900	이영식	\$500	김기춘	\$500
고석경	\$300	심재훈	\$500	서구원	\$900	이장우	\$500	김덕영	\$200
김규진	\$500	이만희	\$300	송계원	\$600	이재수	\$1,400	김동윤	\$500
전성균	\$400	정병락	\$500	신중덕	\$200	이정윤	\$1,400	남상규	\$400
정낙진	\$500	조광재	\$550	신현찬	\$1,200	이종두	\$1,100	문정오	\$300
허릉	\$100	조홍래	\$500	안태룡	\$500	이창윤	\$500	홍창의	\$500
26회		30회		유상호	\$10,400	황해만	\$500	박대선.정근영(34회)	\$2,800+3,000,000
김종구	\$500	강자구	\$800	유진우	\$12,500	33회		박정태	\$500
이세영	\$100	김범주	\$1,000	이석윤	\$1,000	고광빈	\$300	손룡교	\$200
조종수	\$100	노대식	\$1,000	이영해	\$10,500	구자권	\$200	신인건	\$500
27회		노재문	\$100	이종만	\$1,500	김부웅	\$100	신철야	\$400
김재호	\$100	노태균	\$1,400	임병선	\$1,000	김수용	\$100	안정홍	\$300
양남도	\$900	박현동	\$700	임정규	\$1,000+994,054		\$600+10,162,000	육정혜	\$900
유시홍	\$400	박희성	\$1,000	조명래	\$850	김영훈	\$200+100,000	육종윤	\$500
28회		손대익	\$600	지용한	\$1,400		\$200+100,000	이규청.이형혜(37회)	\$31,000+5,800,000
강경훈	\$300	송수헌	\$500	하영재	\$200	김유사	\$100	이기병	\$100
김상완	\$500	송희재	\$700	황기준	\$500	김한주	\$400	이길부	\$200
김용명	\$400+2,200,000	신현원	\$400+550,000	황세환	\$2,300	김홍	\$400	이영길	\$200
		심규원	\$500	32회		김희훈	\$400	이영재	\$200
		이관우	\$500	강대명	\$500	서한규	\$600	이재철	\$200
		이치민	\$900	강영창	\$600	손순천	\$400	이정두	\$200
		정해관	\$500	강창근	\$700	윤징자	\$1,500	장춘식	\$200
		지연숙	\$300	고재명	\$900	이수광	\$3,900	정국	\$200
				구육현	\$1,100	이영화	\$100		
				김경현	\$10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정근영,박대선(34회) \$2,800+3,000,000		37회		이중희	\$350				
정해진 \$500		노태영 \$400		정영섭	\$400+10,000,000				
정호성 \$400		서영수 \$500		허재경 \$400					
조남재 \$200		신기동 \$500							
최성정 \$500		유상박 \$2,100		41회					
최인식 \$875		이재욱 \$3,500+1,000,000		지용백 \$100					
최준혁 \$100		이정현 \$500							
하재덕 \$600		이청혜,이규청(34회) \$31,000+5,800,000		42회					
35회		정윤기 \$4,300		정안국 \$200					
강백현 \$300+100,000,000				44회					
김광준 \$400		38회		김정균 \$100					
김문양 \$500		구본철 \$12,200							
김성원 \$400		권철기 \$500		47회					
김승조 \$400		김명석 \$200		권중효 \$100					
김영길 \$500		김상균 \$400							
김영철 \$400		김용소 \$200		49회					
노여주 \$500		김희한 \$500		정환곤 \$100					
박대원 \$100		배영천 \$100							
박순호 \$400		백성욱 \$800		50회					
육정자 \$300		손성준 \$300		류삼열 \$100					
이상준 \$1,400		윤광열 \$200							
임무웅 \$500		정규용 \$500		55회					
정수진 \$4,800		정병하 \$500		신재길 \$100					
정의일 \$100		정태진 \$500							
정태수 \$400		정호용 \$200		57회					
최임석 \$700				서정곤 \$200					
허련 \$300		39회		58회					
36회		권오갑 \$300		박소향 \$400					
김병욱 \$400		김완조 \$500							
김정휘 \$100		나기도 \$2,300		59회					
김주록 \$400		윤동수 \$200		김경미 \$400					
문종천 \$200		이광백 \$300							
송수일 \$100		이봉기 \$500		60회					
신건석 \$100		이정무 \$500		이영직 \$900					
윤창환 \$100		정무흠 \$100							
장세찬 \$600		40회		61회					
장철광 \$100		김병수 \$400		조명호 \$400					
최송자 \$100		김준기 \$350							
최연일 \$100		김태우 \$1,500							
황성욱 \$100		윤문길 \$150							
		이중술 \$150							

납부 유형별 연회비

- 회람(23,850,000원, 478명)
개원(473명), 봉직(4명), 전공의(1명)
- 지로(3,700,000원, 86명)
 - 대구 근무(48명)
봉직(38명), 개원(10명)
 - 타 지역 근무(38명)
경북지역 개원(24명), 경북지역 봉직(6명)
경북 외 지역 : 충남(3명), 강원(2명), 제주(2명), 전북(1명)
- 5개 수련병원(20,040,000원)
 - 경북대 병원(10,480,000원, 249명)
교수(163명), 임상강사(8명), 전공의(78명)
 - 동산의료원(2,320,000원, 58명)
교수(57명), 전공의(1명)
 - 영남의료원(760,000원, 19명)
 - 가톨릭병원(3,160,000원, 79명)
 - 파티마병원(2,320,000원, 129명)
스텝(92명), 전공의(37명)
- 동창회 지부(17,000,000원)
 - 서울/경기(4,000,000원, 서울 700명/경기 270명)
 - 부산(4,000,000원, 300명)
 - 동해(3,000,000원, 200명)
 - 경남 중부(3,000,000원, 180명)
 - 울산(2,000,000원, 190명)
 - 기타 지부(경주 : 800,000원, 충주 200,000원)
- 기수별 분담금(140,000,000원)
34회~62회 : 29기수
2013년, 2014년 동시납부(34회), 2년 연속 미납부(46회, 56회)

동창회 연회비 납부현황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16회 홍순옥	소원영 송석호 이용길	37회 권광우 권욱진 박기호 박영철 박익현 이동구	41회 강임주 김현철 박효천 서정희 양문석 여운재 장명익	조병권 조성경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 최시호 황보백
18회 이상구	이정창	31회 구자훈 박승국 석재수	42회 권태찬 김종식 김철규 김철수 송재권 이광열 이정근 정무달 조동택 추연만	44회 김광훈 김권배 김법완 김봉일 김애라 김옥배 김인호 김홍진 박인규 배옥석 배충근 백상현 변영수 서승철 서혜진 여형태 오천석 이균증 이상숙 이종주 이태성 정상호 한건호 한치동 함인석
22회 김영권	31회 구자훈 박승국 석재수	38회 권정윤 노한기 박무길 박병기 안태수	43회 권광인 김교완 김기주 김보완 박봉훈 박재식 백태원 안대덕 우성구 유용운 윤덕구 이광숙 이광윤 이규석 이광윤 이진식 장병준 정화선 조동규	46회 김광훈 김권배 김법완 김봉일 김애라 김옥배 김인호 김홍진 박인규 배옥석 배충근 백상현 변영수 서승철 서혜진 여형태 오천석 이균증 이상숙 이종주 이태성 정상호 한건호 한치동 함인석
23회 김희철	엄정섭 이봉조 이희석	39회 강덕식 곽평순 김약호 김희택 박난규 조희웅 채영석	40회 곽재영 김옥동 김완섭 도영구 도재욱 박동궁 박병철 박준식 이승기 전재은 채종욱 한경훈 한승세	47회 권기영 김갑병 김계욱 김광수 김교선 김용진 김제형 김종인 김판석 박성배 박윤기 박종대 변진석 송광순 신순희 유영구 이진기 전동석 정성광 정용재
25회 노영하	32회 김동환 김정만 최종명	32회 김동환 김정만 최종명	45회 김도원 김문수 김성식 김성화	48회 강훈수 김기식 김시동 김용가 김원섭 김윤년 김인호 김지성 김창윤
26회 김영애 박성규 황일우	33회 박문재 양의석 이규보	33회 박문재 양의석 이규보		49회 강철형 고철우 김기산 김정식 김중서 김현준 김혜영 박철희 배덕수 배홍갑 서장수 손석수 손종휘 송중원 안기성 오수희 오영철
27회 김경수 성창섭 이교연 정창근	34회 김충남	34회 김충남		50회 강동기 권영근 권오춘 길영태 김경택 김기호 김상유 김우택 김재연 김정범 김정철 김중윤 김준식 김형수 김호각 모영종 박관규 박문흠 박원균 박재신 서정욱 손경락 안기영 우영훈 이만기 이상락 이영만 이유철 이인규
28회 박진홍 오범희 윤영길	35회 김영희 김장환 박동술 박영남 이원순 최유근	35회 김영희 김장환 박동술 박영남 이원순 최유근		51회 강구정 강수찬 강인규 강재원 강창수 고삼규 권석룡 권오종 권중혁 권흥기 김경수 김광석 김기호 김시환 김신윤 김재왕 김현구 박성민 방종경 손희철 이경수 이경영 이기만 이상무 이상복 이우녕 이원석 이춘기 장내원 장대성 정영식 정용표 정진홍 정혜리 조재영 최관수
29회 강진성 박상곤 박영춘 박진상	36회 강병조 박도수 백용현 심청택 정수광	36회 강병조 박도수 백용현 심청택 정수광		
30회 권득기 김도상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용순 김종훈 김태현 김행미 김홍태 남상재 박용훈 박진석 반종석 안도환 윤상기 이병수 이원길 이원식 이정구 이종룡 이종태 이현주 이호성 장익현 전영준 채종민 허정욱 황성규	이병진 이수정 이창 장재국 정선권 정성희 정철호 차순도 채유호 한기환 한대기	류수현 문병천 박대환 박영식 박은호 박일형 박재복 박창용 서민호 손은익 신명숙 이내호 이동철 이우형 이윤순 이일기 장봉현 정능수 정혜영 조지호 채성철 천병렬 최상용 최세영 한승욱	이관호 이병기 이상열 이상욱 이승철 이신하 이종수 임효덕 정경재 조영수 최영철 하영수 한창호	이정철 이종근 이형우 장원삼 정현대 추동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최재성	김시오	윤경철	이원기	조미경
한금주	김용림	윤영팔	이종훈	조은경
현명철	노기석	이상민	이태우	조응래
52회	박매자	이재흠	장필식	조재훈
김도수	변정환	이정호	정승필	최지용
김동억	서경란	정동일	정현주	최희만
김영두	서호철	정홍우	조용근	홍순만
김영조	손수준	주대현	조창호	홍원표
김용선	손진호	최창혁	최규석	57회
김철규	송경은	하승우	최병호	권혁진
나건연	송도영	홍성범	최정현	김동희
마인열	양재식	황정환	한동길	김문규
민병우	이구희	55회	허동명	김성호
박성파	이민석	강도원	허주희	김연재
박성환	이성구	김광원	홍승표	김영애
박재용	이성문	김귀란	56회	김용현
박재울	임성이	김대현	감신	김은숙
배성일	장유석	김동환	강경호	김이근
이동국	정호영	김명규	권태균	김진경
이무상	조희태	김숙희	권태환	김철진
이상원	최성관	김승업	금동윤	김희진
이순화	최정윤	김은영	김대현	노은석
이장철	현향숙	김재우	김상경	류재근
이정안	홍경순	김재철	김익수	박병준
이종명	54회	김정수	김정국	박상익
장해운	강영모	김창호	김지언	박성식
조병재	경희수	김하식	박준완	박정철
조진환	권영오	남대희	박헌식	박태규
천동욱	김덕윤	박선우	서만수	배기열
추진신	김병근	박성근	신승현	백지령
하정희	김수동	백승창	신지열	성미현
허형호	김시열	상영호	심육택	성이경
홍성권	김영진	손상균	안영	신상근
황윤진	김영환	송소현	오창욱	염현규
53회	김익현	신동건	이섭	오성윤
강현구	김인겸	신왕식	이승현	우언조
권순학	류춘욱	신정애	이양수	윤경태
권영식	박남운	신현호	이종인	이경호
권종설	박순우	이남혁	이창형	이덕희
김규태	박순원	이상권	이홍규	이동은
김성국	서강석	이석중	임동건	이병헌
김숙영	성열오	이성락	전석구	이승민
	여민희	이영환	조명래	이연희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종민	정홍수	황준구	류기영	신재욱
전성호	최석문	60회	민복기	오창기
정낙홍	한병인	권대구	박경식	이동진
정병천	황정현	김경호	박근홍	이상호
조영욱	59회	김보미	박미영	이상희
조준현	권옥희	김상걸	박진영	이수형
주은희	권중구	김소희	서지영	이영숙
천임순	권태훈	김장원	신태현	이은석
최동락	김건우	김창수	여동근	이응창
최성곤	김대현	김채기	우상균	이철희
탁원영	김성희	김태석	이기흥	임경진
하미희	김은남	김항진	이동영	장순희
현대성	김정민	박범준	이동욱	정진욱
58회	김종근	박학열	이병욱	조병욱
강태경	김진석	백승혜	이승엽	조진흠
곽미선	김철현	서종교	이영실	최영철
구명숙	김현수	신동필	이영학	황위경
권성철	박건욱	신재필	이정훈	63회
금민수	박미영	양동렬	이종우	강현재
김경훈	박용진	윤혜정	장세양	곽동훈
김문규	박호용	이경림	장형욱	김건엽
김병호	백인화	이원주	정규영	김정규
김신우	서인경	이응배	정진용	김호균
김윤영	안형수	이인수	정호윤	김홍균
김준홍	예미경	이종현	제석준	박민식
김학근	오현석	이지항	조현정	박재홍
박경희	원승희	정진원	최윤석	박준철
박남일	이기준	정진태	추호식	상동민
박영진	이두기	조창민	홍지연	신동우
박종훈	이미정	한정훈	62회	양근진
신승호	이봉렬	한창욱	김경호	여창기
신현웅	이상미	61회	김승찬	우창근
심재인	이정우	강유나	김영돈	유은상
양은경	임현주	강현욱	김지섭	이동걸
오훈규	전홍배	권오대	남근하	이신일
원준희	정기하	김광훈	남현철	이정미
윤상모	정주화	김영탁	노건영	이종협
이상한	조정아	김영환	도승경	이지인
이제철	조준용	김정일	도현우	이춘희
이호영	차승익	김종광	류남희	임정훈
임선경	최은진	김준홍	박준호	전태형
정병용	한형수	도진국	박진형	정총일
정연주	황동하		손희강	천경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홍성연	박준모	이상빈	정의윤	우정민	박진성	박주호	김경덕	82회		
홍찬	서영진	이승훈	한원경	이동현	변성혜	박종호	김동현	김현		
64회	이광석	이용직	홍성욱	이영옥	이총렬	서승돈	김재봉	박세훈		
고상봉	이상우	이유정	70회	정호진	정동호	이승진	문하나	손종철		
곽은경	정재권	이정은	김윤정	정훈	하헌탁	임태섭	박준이	정영권		
권상휘	정진향	이환석	김창현	최주완	허성재	장지훈	송병진			
김근직	주형돈	임경훈	남승오	홍남수	황보선미	최영연	우명진			
김여향	최희진	전보영	동상진	황수경	76회	최진혁	유병혁			
김재한	한주엽	정운선	박내윤	73회	박인	79회	윤덕근			
김정민	홍정현	차영창	서지형	강건우	박진학	권석경	이상래			
김종철	66회	황승욱	신경민	김아솔	성형민	권오영	이소희			
김태엽	구순정	68회	이경민	김혜진	신영민	김구태	이수정			
김형섭	권오경	강병욱	이승정	노상문	윤성대	김명수	이유진			
김혜숙	김대진	권준범	이현석	박선희	이경민	김솔지	이혜림			
민우기	김은진	김영진	정윤진	박수연	조인국	김정은	이혜림			
박대진	김종연	김태은	최석환	박숙현	최동호	김지나	장철우			
박성현	김주현	김형곤	최희정	배진영	홍성경	김지우	정비나			
박창근	김형기	류태하	홍석진	안동빈	황기하	남상진	정승연			
신상철	김혜경	박동호	71회	오택혁	77회	문정은	정한나			
심삼도	김혜정	박정엽	강경훈	이정우	김상동	박경민	조현호			
오병민	손준혁	성원준	김기홍	이현주	김준영	박지혜	최광욱			
이규엽	윤성원	양종원	김용원	이화정	김준우	박진경	최연주			
이덕현	윤창호	유승수	김지민	74회	김지현	박진희	최우찬			
이명권	이경우	이병하	김태훈	권택주	박성규	백희선	황중문			
이영두	이상철	이승수	박한창	김동현	박신행	석효암	81회			
이우근	이정호	이신엽	심광석	김진혁	박영보	송승호	강민구			
이응주	이현정	정상식	이상윤	김하정	송진원	송우선	권미영			
이현주	정보영	69회	이호철	김한상	이병주	안지영	김기범			
이호원	조영호	권준형	임은정	김형섭	정규식	윤혜영	김상균			
장효찬	채익수	김건현	전경모	김혜인	정대근	이상아	김성배			
전성우	최영준	김광현	최원석	문유호	한영민	이정구	노다은			
정치영	홍대기	김이혁	최재영	박정하	한인호	이종욱	민소윤			
정태두	황양하	김지환	최지영	서현애	78회	이준석	서효림			
천재민	67회	김현태	한만훈	설기호	강봉화	임장환	이류경			
황규하	권민경	박신률	72회	유현승	공지선	장병구	전재성			
65회	김은수	손준호	권세윤	장종창	권재춘	조성훈	정윤수			
김병익	김은주	이동원	김범수	조윤정	김도훈	최우곤	조충은			
김성규	김재수	이윤수	김현지	황준현	김보연	함혜민	조태경			
김양태	김지윤	이창민	노재현	75회	김지은	허진석	최동헌			
김찬중	김진영	장선익	박경덕	김효민	김태훈	80회	한경구			
김태훈	박옥량	정근오	서상준	문종원	박수진	강균은	한자령			
노재수	신동주	정신영				권정은				

회수	성명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16	홍선희		02-535-0827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2동 715호
17	안두홍		053-351-7989	대구 북구 침산3동 233-3 동아2차무지개아파트 206-803
18	이동식		053-741-5471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503
19	김익동		053-256-0066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수성래미안APT 105-1201
19	서희수		053-634-0644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13 월성우방아파트 102-406
23	김희철	이현연합의원	053-555-3397	대구 서구 평리6동 573-5(2층)
24	조준승		053-745-1609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1601
25	오탈환		053-741-051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429-6 메트로팔레스 209-1001
26	황일우		053-761-5106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타운 12-202
27	이철상		053-766-3666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아파트 12-602
27	김경수	낙타연합정형외과의원	053-756-3000	대구 동구 신천3동 142-3
28	박진홍	박진홍정형외과의원	053-257-2135	대구 중구 종로1가 41
30	안원호	영진가정의학과의원	053-653-2401	대구 달서구 두류1동 1214-3
29	김두희		053-743-9596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룬바드아파트 101-502
30	이정창	이정창이비인후과의원	053-424-2600	대구 중구 공평동 81-1
30	전재규		053-591-5259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2차 영남우방타운 106-401
31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053-983-7700	대구 동구 파계로 6로 16
32	정인호		053-765-3360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508-205
33	양익석	경찰공제회 대구북부의원	053-311-0835	대구 북구 태전동 1076-1
33	정해명	수강외과의원	053-743-9200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96-324
34	김유문	동대구의원	053-755-1339	대구 동구 신천3동 142-4
35	김장환	김장환이비인후과의원	053-257-2774	대구 중구 종로1가 6-5
35	이원순	청구정형외과의원	053-421-7000	대구 동구 신천 1동 787-6
36	염덕준	염덕준이비인후과의원	053-567-3709	대구 서구 평리4동 1218-1
36	장기용		053-588-9766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8-603
37	박영철	대봉정형외과의원	053-471-9098	대구 남구 이천동 184-41
37	박의현	박의현구심내과의원	053-252-1785	대구 중구 대봉1동 20-65
38	김민상		053-941-3893	대구 북구 산격4동 1429-19
38	박동열		053-651-1238	대구 달서구 송현1동 207-16(3층)
39	김능수		053-753-1102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수성보성아파트 108-1605
39	곽정식		010-8841-6970	대구 수성구 만촌1동 617-23
39	곽평순	곽안과의원	053-953-9573	대구 동구 신암1동 603-128
40	박영호	박영호외과의원	053-755-4131	대구 동구 효목2동 526-3
40	전재은	경북대학교병원 내과	053-420-5526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41	이상훈	보훈병원	053-630-7000	대구 달서구 월곡로60(도원동 748)
41	박경동	효성병원 산부인과	053-766-7070	대구 수성구 중동 105-2
42	김용구	대구의료원 정형외과	053-560-7271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42	송재권	송이비인후과의원	053-954-7575	대구 동구 신암1동 592-2
43	조병권	동산산부인과의원	053-621-4533	대구 남구 대명9동 909-1
43	조영철	파티마내과의원	053-852-6666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4리 135-27

44	배충근	배충근내과의원	053-765-1999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262-2
44	오신열	오신열신경정신과의원	053-623-0013	대구 남구 대명6동 1056-1 문화빌딩 2층
45	박용훈	영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053-620-3532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45	이종룡	지노메디여성병원	053-757-2000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17
46	성주경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053-420-5655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46	정선권	아세아정형외과의원	053-582-5400	대구 달서구 이곡2동 902-3
47	전동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053-250-7222	대구 중구 동산동 194
47	김영근			대구 수성구 수성로7기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105-1409
48	박재복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병리학교실	053-650-4155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48	박영식	박이비인후과의원	053-682-2315	대구 남구 대명9동 901-1
49	이종영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053-420-5480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49	강순병	강내과의원	054-333-3525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7
50	안면중	하양연합정형외과의원	053-856-772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6-6
50	이유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053-420-4843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51	이원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054-973-114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51	이현수	엘스산부인과의원	053-593-9000	대구 달서구 이곡2동 1198-1 클리닉좋은의사들 2층
52	박성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외과	053-650-4055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52	김상운	영남대학교의료원 외과	053-620-3589	대구 남구 현충로 170
53	이민재	프라자내과의원	053-762-6844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72-11 한가람코아 142호
53	강현구	강정신과의원	053-253-2882	대구 중구 남산2동 925-5
54	백효중	백효중내과의원	053-958-5555	대구 동구 신암1동 603-126(2층)
54	박순원	박순원에스앤비의원	053-422-7565	대구 중구 대봉1동 23-7 파이론빌딩 4층
55	박선우	선우속시원내과의원	053-322-0315	대구 북구 태전2동 993-9 종수빌딩 2층
55	신현호	신현호병리과의원	053-768-5317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82-2 제우빌딩 4층
56	전석구	전석구내과의원	053-957-6514	대구 북구 복현2동 364-1
56	소준현	칠곡연합정신과의원	053-323-5831	대구 북구 태전2동 993-9 종수빌딩 3층
57	이상국	서부산센텀병원 정형외과	051-329-3000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5
57	최성곤	최성곤내과의원	053-782-3190	대구 수성구 범물2동 455-3
58	이동훈	라인성형외과의원	053-254-1555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5-1
58	이영현	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	054-972-6399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91-6
59	황동하	황동하성형외과의원	053-425-4254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15
59	정재균	정재균내과의원	053-812-6517	경북 경산시 중방동 520-2
60	이응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053-200-2114	대구 북구 학정동 474
60	김동훈	성모이비인후과의원	053-326-7171	대구 북구 구암동 769-3 부일빌딩 2층
61	제석준	건강제일내과의원	053-255-8333	대구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빌딩 2,3층
61	여동근	원대연합의원	053-354-8050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431-3
62	이건희	파티마연합통증의학과의원	053-811-7580	경북 경산시 중방동 517-4
62	이수형	새빛안과의원	053-322-1901	대구 북구 태전동 940
62	정진욱	우리연합정형외과.신경외과	053-744-8330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330
63	전수열	튼튼마디정형외과의원	053-721-7766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17-3
63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054-231-7582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64	김대원	티아라의원	053-752-30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44-2
64	박진욱	마미안여성병원	053-813-1100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9-1
65	김용운	수성메트로병원 정형외과	053-743-7777	대구 수성구 만촌2동 1037-17
65	김진년	조은내과의원	054-882-888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25-20
66	이성만	군센병원 정형외과	053-710-05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06
66	변승득		053-752-9382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102-1401

편집후기

먼저 옥고를 보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인 세 분에 대한 추모사가 눈에 띄었다.
특히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정태호 교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지난 15년의 세월을 되집어 봅니다. 학창시절엔
원로 교수님이셨지만, 정년퇴임 후에는 오히려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자상한 멘토가
되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용철 회장님께서 지부 소식, 재무 및 장학 관련 자료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자세히 검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입 공보이사가 동창회보를 편집할 때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호에 비해 한 없이 초라한 동창회보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서 6년차 공보이사는 동창회원님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회장님께서 열정이 넘치는데 상임이사들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회장님께서 열정이 넘치는데 상임이사들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변변한 원고도 없이 편집하느라 마음 고생이 심했을 편집기획사 이포럼 이어진
대표님과 이혜미 씨, 동창회 박은미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에 공보이사 김인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임원 명단

회장	지용철	43회	053-630-6271
부회장	김성학	41회	051-864-2222
부회장	김용신	47회	02-2001-2136
부회장	조병채	51회	053-420-5001
부회장	김권배	44회	053-250-7423
부회장	최병연	42회	053-620-3792
부회장	김제형	47회	053-954-4288
부회장	김재왕	51회	054-856-7111
부회장	박성민	51회	053-631-3771
부회장	송중원	49회	053-426-5151
부회장	박문흠	50회	053-561-5665
부회장	안기영	50회	053-422-6222
부회장	강인구	51회	053-794-9400
부회장	고삼규	51회	053-609-3170
부회장	곽동협	52회	053-252-2401
부회장	이민석	53회	053-756-3006
부회장	손효돈	54회	053-588-9666
부회장	정현주	55회	053-253-0707
총무이사	김문규	57회	053-420-4876
재무이사	제석준	61회	053-255-8333
공보이사	김인겸	54회	053-420-4833
사업이사	최동호	54회	053-721-7218
조직이사	신현호	55회	053-768-5317
학술이사	김정민	59회	053-420-4845
정보이사	상영호	55회	053-741-8575
장학이사	민복기	61회	053-425-7582
정책이사	김원섭	48회	053-782-4008
정책이사	최창혁	54회	053-650-4276
정책이사	최재석	58회	1644-8575
정책이사	신현웅	58회	053-940-7160
정책이사	서영익	58회	053-255-3134
정책이사	김경호	62회	053-742-0100
정책이사	임정훈	63회	053-795-7585
정책이사	이우근	64회	053-793-9030
정책이사	변승득	66회	053-752-9382
감사	이정근	42회	053-321-0020
감사	최시호	43회	053-426-5060

동창회비 송금 안내

2015학년도 경북의대 동창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부하신 동창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원회원 : 50,000원
- 근무 및 수련회원 : 40,000원
- 대구 외 기타지역 개원회원 : 40,000원

경북의대 동창회비 온라인 송금

대구은행 : 508-11-718465-9 예금주 : 경북의대동창회(제석준)

문의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전화 : (053)422-5114, 420-4981

팩스 : (053)424-0799

송금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송금

송금 온라인 계좌는 대구은행 149-04-000196-5

예금주는 경북의대동창회입니다.

장학기금 송금에 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로 연락바랍니다.

회무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01 경북의대 본관 1층

동창회 사무실(우 : 700-442)

담당 : 박은미 실장

☎ (053)422-5114, 420-4981 / FAX. (053)424-0799

휴대전화 : 010-8986-2550

e-mail : kpmedal@hanmail.net / medal@knu.ac.kr

경북의대 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kpmedal.co.kr

경북의대 동창회 '안행' 원고 모집

kpmedal77@hanmail.net

회원 활동사항 및 동문들의 근황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시시오.

→ 지부 또는 기별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

정보이사 상영호 : sangyh@naver.com

2015 행운의 밤

2015 행운의 밤 행사가 올해도 모교 교정에서 열립니다.

‘행운의 밤’은 우리 경북의대 동문들의 축제입니다.

이번엔 리더들도 꼭 참석하셔서 동문의식을 고취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6시

장소 : 본교 중간마당